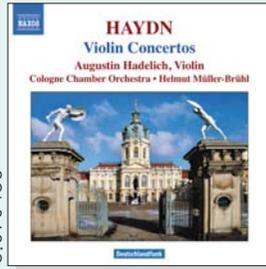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31호 | April, Ma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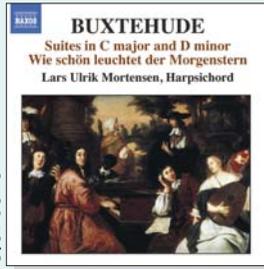
8.570483



HAYDN
Violin Concertos
Augustin Hadelich, Violin
Cologne Chamber Orchestra • Helmut Müller-Brühl

하이든:
바이올린협주곡 Hob.
VII 1,3,4
아구스틴 하델리히(vn)
콜른 챔버 오케스트라
헬무트 뮐러-브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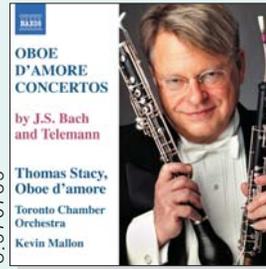
8.570579



BUXTEHUDE
Suites in C major and D minor
Wie schön leuchtet der Morgenstern
Lars Ulrik Mortensen, Harpsichord

북스테후데:
하프시코드 작품집 Vol.1
라스 울릭 모르텐센(ce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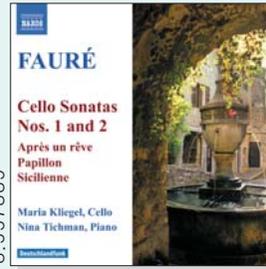
8.570735



OBOE D'AMORE CONCERTOS
by J.S. Bach and Telemann
Thomas Stacy, Oboe d'amore
Toronto Chamber Orchestra
Kevin Mallon

텔레만, JS 바흐:
오보에 다모레 협주곡집
토마스 스테이시(오보에 다
모레)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케빈 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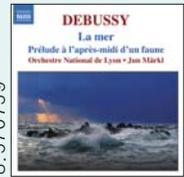
8.557889



FAURÉ
Cello Sonatas
Nos. 1 and 2
Après un rêve
Papillon
Sicilienne
Maria Kliegel, Cello
Nina Tichman, Piano

포레:
첼로소나타 1,2번
마리아 클리겔(vc)
니나 티흐만(pf)

8.570759



DEBUSSY
La mer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Orchestre National de Lyon • Jan Mikš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바다, 어린이가 세계 외
음 매르클
리옹 국립 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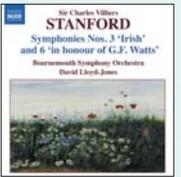
8.570709



KUHLAU
Piano Sonatas,
Op. 59
Jení Janda, Piano

쿨라우:
피아노소나타 Op.59 &
피아노소나타 Op.20
예뇌 안도(pf)

8.570355



STANFORD
The Charles Villiers
Symphonies Nos. 3 'Irish'
and 6 'in honour of G.F. Watts'
Bournemouth Symphony Orchestra
David Lick-Jones

스탠퍼드:
교향곡 3번 '아이리쉬',
교향곡 6번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분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8.570177



OHZAWA
Piano Concerto
No. 2
Symphony No. 2
Ekaterina Saranets, Piano
Kansai Philharmonic Orchestra
Toshiyuki Yokohama

오자와:
피아노협주곡 2번,
교향곡 2번
에카테리나 사란체바(pf)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리시안 필하모닉

8.570319



SUGATA
Symphonic Overtures
Powerful Dance of Two Dragons
The Rhythms of Life
Dancing Girl in the Orient
Kangara Philharmonic Orchestra
Kazuhiko Kamekura

수가타:
교향서곡, 두 마리 용의 맹
화로운 춤, 삶의 리듬 외
카주히코 코마츠
카나가와 필하모닉 오케
스트라

8.559376



JAMES COHN
Symphonies Nos. 2 and 7
Shakuhachi Symphony Orchestra
Yakhyong Jordania • Kirk Trevor

제임스 콘:
교향곡 2번, 7번 외
박탕 조르다니아,
커크 트레버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8.559297



AMERICAN CLASSICS
COPLAND
Piano Concerto
The Tender Land Suite • Old American Songs
Benjamin Paterson, Piano
St Charles Singers • Elgin Symphony Orchestra • Hanson

코플랜드:
피아노협주곡, 올드 아메리
카 송 1,2집, 부드러운 대지
벤저민 패스터백(pf)
세인트 찰스 싱어즈
로버트 헨슨
엘진 심포니

8.559353



AMERICAN CLASSICS
IVES
The Three
Orchestral Sets
Mahan Symphony
Orchestra and
Chamber Chorus
James Sinclair

아이브즈:
관현악 세트 1-3번
제임스 싱클레어
말와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합창단

8.557882



VARÈSE
Orchestral Works + 2
Amérique • Ecume • Invention
Watu • Goussouka • Black
Sheep's Voice of Concrete Music
Polish National Radio Symphony Orchestra
Christophe Lugin-Gut

바레즈:
아메리크, 비중 21.5,
이온화, 하이퍼프리즈 외
크리스토퍼 린드-지
폴란드 국립 방송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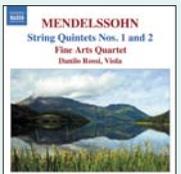
8.570740



Carl Philipp Emanuel BACH
Viola da gamba Sonatas
Dietrich Kauen, Viola
Peter Lask, Harpsichord and Piano

CPE 바흐: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
드미트리 쿠히프(vc)
페터 라울(cemb & pf)

8.570488



MENDELSSOHN
String Quintets Nos. 1 and 2
Five Arts Quartet
Dmitri Bond, Viola

멘델스존:
현악오중주 1번 & 2번
파인 아트스 현악사중주단
+ 다닐로 로시(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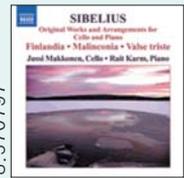
8.559364



AMERICAN CLASSICS
CORIGLIANO
The Red Violin
Caprices
Viola Sonata
Viggo
THOMPSON
Three Portraits
Five Ladies
Eight Portraits
Phillips Quintet, Viola
William Wolfson, Piano

코리리아노:
레드바이올린,
바이올린소나타
톰슨: 8개의 초상 외
필립 퀸트(vn)
윌리엄 울프샘(pf)

8.570797



SIBELIUS
Original Works and Arrangements for
Cello and Piano
Finlandia • Malignita • Valse triste
Joni Makkonen, Cello • Raii Karu, Piano

시벨리우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들
유시 마코넨(vc)
라이트 카루(pf)

8.570717



Girolamo FRESCOBALDI
Keyboard Music
From Manuscript Sources
Martha Fells, Harpsichord

프레스코발디:
건반 작품집
마라타 폴스(cemb)

8.570789



GREEK CLASSICS
DRAGAČAKIS
Complete Solo Piano Music
Sonatas • Antiques • Etudes
Lorenza Ramona

드라가타키스:
피아노작품전집
(소나타 1,2번 외)
로렌다 라모우(p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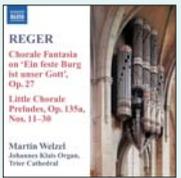
8.570368



SCARLATTI
Complete Keyboard Sonatas Vol. 9
Francesco Scarlatti, Piano

D. 스카를라티:
건반 소나타 vol.9
프란체스코 니콜로시(pi)

8.570455



REGER
Chorale Fantasia
on "In feste Burg
ist unser Gott",
Op. 27
Little Chorale
Preludes, Op. 135a,
Nos. 11-30
Martin Welzel
Johannes Kluge Organ,
Three Cathedral

레거:
코랄환상곡 '내 주는 강
한 성이요', 작은 코랄 프
렐류드 외
마틴 웰첼(트리어 대성당
오르간)

8.557960-62



HANDEL
Hercules
(A Musical Drama)
Wendy • Skarman
Vandrom • Schick
Kang • Kubie
Schneider
Jorge Kastner
Frankfurt Baroque
Orchestra
Joachim Carlos Martini

헨델:
허클리스(헤라클레스)
페티 코이(허클리스) 외
웅예 칸토라이
JC 마르티니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3 CD SET

New Release
윤문사 전망스님 시낭송집 '구름나그네'
어린 슈로트의 피가로의 결혼

Cover Story
이탈리아 바이올린계의 여왕 지오콘다 데 비토



20세기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전설 지오콘다 데 비토의 예술최고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1962년 갑작스런 은퇴와 함께 적은 녹음만을 남겨 아쉬움을 남긴 **지오콘다 데 비토의 예술을 모국 이탈리아의 새로운 리마스터링으로 만난다!**

토스카니니와 무솔리니가 극찬했던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푸르트벵글러, 에드윈 피셔, 예후디 메뉴힌 등 최고의 연주자들과 협연했던 지오콘다 데 비토는 느비, 마르치, 모리니와 함께 여류 바이올리니스트의 전설을 만들었다. 거침없이 유려하면서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수많은 애호가를 감동시킨 그녀의 연주는 하나하나 거장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이다.

IDIS 6378
브람스: 이중협주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지오콘다 데 비토

IDIS 6488/9
실내악 레퍼토리
연주: 지오콘다 데 비토

IDIS 6443/4
베토벤, 바흐, 비오티 협주곡 외
연주: 지오콘다 데 비토

IDIS 6532
브람스/멘델스존 협주곡
연주: 지오콘다 데 비토

CDS 28
에르스트/비에냐프스키: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

이탈리아 바이올린계의 여왕

오늘날에는 여성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너무도 많고, 교통수단이나 대중 매체의 발달로 그들의 연주를 직접 접하거나 최상의 음질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즐비하다. '홍일점'이라는 단어를 끼여들 필요를 못 느끼며, 여성연주자라고 해서 남성 연주자와 특별히 구별되는 경우조차도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러모로 여건이 제한되어 있어 SP나 LP를 통해서 음악 감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날로그 시대에는 몇몇 특출한 여성 연주자들과 그들의 녹음은 아주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애호가들의 심금을 울리며 '전설적인'이라는 수식어로 떠받들어 지던 여성 연주자들은 지네트 느비, 요한나 마르치, 이다 헨델, 에리카 모리니, 그리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지오콘다 데 비토 같은 인물이었다. 초고음질의 음반을 내놓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이름들이 그야말로 '전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LP 시대 그들의 이름은 위대한 여성 클래식 연주가의 초상이었다.

데 비토는 1907년 7월 26일 이탈리아의 마르티나 프란카(Martina Franca)에서 태어났다. 7세에 고향의 밴드 지휘자한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실상 독학으로 상당한 수준의 연주기술을 익혔다. 이후 11세에 페사로 음악원에 입학한 그녀는 2년 수업과정 내내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남다른 재능을 과시했다. 음악원을 졸업한 후에도 데 비토는 피나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연주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혼자 열심히 레퍼토리를 확충시켜 나갔다. 1924년에 파리 음악원이 설립 되었을 때 그곳에 교수로 갔고, 약 10년간 그곳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몰입했다. 말하자면 연주자로서는 10년간의 공백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데 비토는 1931년 파리에서 토스카니니의 격찬을 받으며 심기일전하였고, 1932년에는 마침내 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350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녀는 이때부터 많은 콘서트에 초대되었고 그 인기와 명성으로 급기야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의 바이올린 교수직까지 얻게 되었다. 한동안 연주자보다는 바이올린 선생으로 생활하다가 1947년에 처음 런던에 가서 HMV 스튜디오에서 바흐의 '사콘'을 녹음했는데, 이 녹음은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그녀는 1948년에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런던 공식 데뷔 연주를 펼쳤다. 이때 그녀와 자주 만났던 동료 바이올리니스트는 아이작 스타인, 예후디 메뉴힌이었는데, 특히 메뉴힌과는 이후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데 비토는 1949년에 결혼해서 영국에 정착했다.

'짧고 굵게'는 예술가적 모토는 짧은 기간 화려한 빛을 발했다가 사라진 인물을 보는 우리의 가슴에 특별한 자극을 가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전설의 끈을 이어온 이다 헨델보다는 섬광처럼 살다가 지네트 느비에 대해 더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데 비토는 느비처럼 요절한 연주가가 아니다. 향년 87세, 오히려 꽤 장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연주 경력은 상당히 짧은 편, 1940년대 후반부터 1961년까지였을 뿐이다. 1962년에 그녀는 자신의 연주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기껏 경력이라고 해야 10여년 정도, 사람은 장수했지만, 연주는 오래 전에 요절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짧은 프로 연주자 경력동안 탁월한 테크닉과 시적인 감성으로 많은 레퍼토리들을 연주하여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다. 특히 토스카니니 앞에서 연주했던 바흐의 협주곡을 위시하여, 멘델스

CDS 133
드라고네타: 더블베이스를 위한 작품들
쉽게 접하기 힘든 더블베이스의 목직한 매력들

CDS 164/1-2
JS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CDS 233
파슈: 관현악모음곡
최초로 녹음된 파슈의 관현악 모음곡

CDS 260
파가니니: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파가니니 음악 Vol.1
바이올린 협주곡 1번 & 2번

CDS 285
타르티나: 첼로 협주곡, 플루트 협주곡

CDS 371
롤라: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6개의 이중주, 비올라를 위한 3개의 카프리스

CDS 375
Mandolin in the capitals of Europe

CDS 381
피아졸라 : 탱고

CDS 514
JS 바흐: 만돌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들

CDS 519
갈루파: Concerti a Quattro

CDS 555
파가니니: 기타를 위한 기리비치 전곡

CDS 570/1-2
레온카발로: 가곡 전집

IDIS 6533
모차르트: 레퀴엠

IDIS 6534
세고비아의 예술 Vol.4
안드레아 세고비아의 스튜디오 레코딩 (1952-58)

존의 협주곡, 브람스 협주곡은 그녀의 핵심 레퍼토리이며 보증수표들이다. 무척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데 비토는 외관상으로는 침착하고 태연한 기질을 보였지만, 바이올린의 내성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은 불처럼 뜨거웠다.

데 비토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스트라디바리 '투스칸'을 빌려 사용했는데, 그녀의 손으로 빛어지는 맑고 풍성한 톤은 그 명기에 힘입은 바 크다. 그녀의 연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도도하고 유장한 흐름을 지니고 있고, 남성 연주자 못지않게 힘차고 화려하며, 내성적이고 치밀하다. 필치는 섬세하지만 선이 가늘지 않고 오히려 굵직하다. 또 그녀의 음악에는 어정쩡한 프리레이징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다. 시적인 감성과 노래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갖고 있는 그녀는 특히 선율선이 아름다운 느린 악장에서 커다란 빛을 발하는데, 가령 브람스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느린 악장을 듣는 우리는 그 매혹에 숨이 멎을 것 같은 순간을 수차례 맞게 된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2악장은 필자가 이제까지 들어본 모든 명연주들을 통틀어 한손에 꼽힐 베스트 음원 중의 하나이다. 1952년 데 비토의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동년의 루돌프 슈바르츠 지휘의 스튜디오 레코딩도 있지만, 소개된 음반은 푸르트벵글러 지휘 아이템이며, 이탈리아 토리노 실황음원이다. EMI LP들만으로 만족해야 했던 시절, 애호가들을 애타게 했던 것이다. 루돌프 슈바르츠 지휘 아래 아메데오 발도비노의 첼로와 함께 협연했던 1952년 브람스의 이중협주곡도 스튜디오 녹음인데, 그녀의 베스트 레코딩 가운데 하나다. 데 비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3대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하나인 베토벤의 협주곡 녹음을 아쉬워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탈리아 레이블은 1950년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악단과 지휘자 미상의 음원까지도 확보했다. 이 음반에는 메뉴힌과 협연한 바흐의 협주곡, 비탈리의 사콘, 비오티의 협주곡 22번까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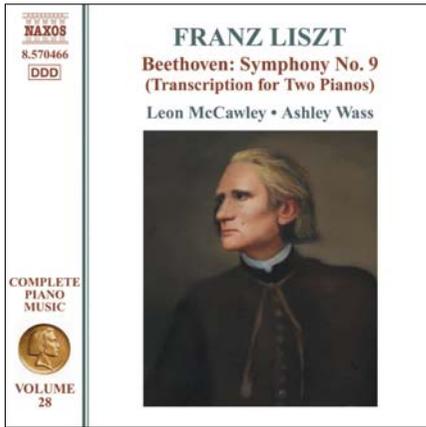
끝으로 실내악 레퍼토리란 제목의 음반은 파셀, 헨델, 비오티, 베토벤, 프랑크의 실내악 작품들을 싣고 있다. 두 가지 음반은 24비트 리마스터링 과정을 거쳤고, 나머지 음반들도 '이탈리아 바이올린계의 여왕'의 소리를 감상하는데 전혀 문제없을 정도의 좋은 음향이다. (이성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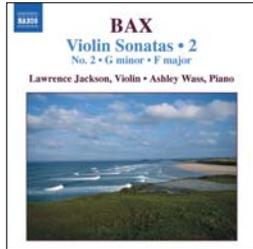


Nax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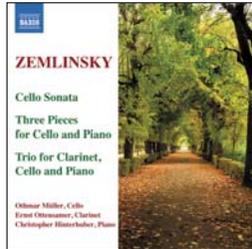
www.naxos.com



8.570466
리스트: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
리온 맥컬리 & 애슐리 와스(피아노)
 리스트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에 대한 피아노 편곡을 2종류 남겼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편곡은 한 대를 위한 편곡에 비해 원곡의 풍성한 텍스처를 보다 충실히 건반 위에 옮겨 놓았다. 베토벤 콩쿠르 1위와 리스트 콩쿠르 2위에 빛나는 영국의 기대주 레온 맥컬리와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애슐리 와스의 유기적인 앙상블이 이 걸출한 편곡작품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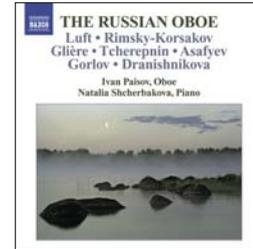
8.570094
백스: 바이올린소나타 2번 외
그라모폰 추천음반
로렌스 잭슨(바이올린)
애슐리 와스(피아노)
 백스는 바이올린소나타 2번에서 1차대전의 비극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스스로 '죽음의 춤'이라고 불렀던 2악장에서 그 비감은 더욱 절절하게 드러난다. 이국적인 정취가 배어있는 발라드와 전설곡, 그리고 작곡가의 마지막 바이올린소나타인 소나타 F장조가 함께 수록되었다. 마기니 퀴벳의 리더였으며 현재 버밍엄 심포니의 악장으로 활약중인 로렌스 잭슨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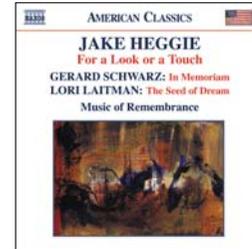
8.570540
체믈린스키: 첼로소나타, 클라리넷트리오 외
오트마르 뮐러(첼로)
에른스트 오펜타머(클라리넷)
크리스토퍼 힌터후버(피아노)
 쇤베르크의 스승이자 친구였으며, 말러와는 연관관계였던 체믈린스키는 후기낭만주의의 대미를 장식했던 작곡가의 한 사람이었다. 음반에 수록된 세 곡의 실내악은 모두 청년기 시절의 작품들로 그의 이상과도 같았던 브람스의 영향(특히 클라리넷 트리오)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어두운 색조의 2악장과 쾌활한 3악장이 어우러진 첼로소나타는 작곡가의 실내악 중에서 가장 즐겨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8.570417
핀지: 디에스 나탈리스, 현을 위한 전주곡, 야상곡, 무기여 잘있거라 외
제임스 질크리스트(테너)
본머스 심포니
데이비드 힐
 핀치의 대표적인 성악곡인 디에스 나탈리스(탄생의 날)는 세상으로 첫 발을 아기의 놀라움과 순수한 동심을 서서히 좀먹어들이는 세상의 때를 서정적인 선율과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현을 위한 전주곡은 본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환상곡을 연상케 하는 차분한 정서의 작품이며, 허밍웨이의 소설이 아닌 조지 필의 동명 소네트에 기초한 감동적인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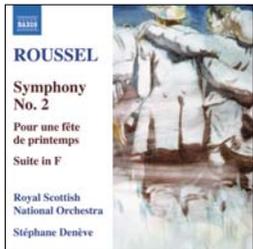
8.570596
러시아 오보에 (림스키코르사코프, 체렐린, 골로프 외)
이반 파이소프(오보에)
나탈리아 슈체르바코바(피아노)
 150년에 걸친 러시아의 주옥같은 오보에 레퍼토리를 망라한 음반.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오보에주자였던 루프트의 러시아 민요에 의한 환상곡,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비의 비행의 오보에를 위한 편곡, 아사피에프의 오보에를 위한 소나티나, 서정미가 들쭉 배어있는 드러니쉬니코바의 시곡 등등 오보에의 매력적인 비음을 아끼는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8.559379
헤기: For a Look or a Touch
의
뮤직 오브 리멤버런스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소재로 한 세 작품을 수록한 음반. 제이크 헤기의 연가곡 'For a Look or a Touch'는 동성애를 이유로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되었던 두 독일 소년들의 실화를 소재로 삼았다. 지휘자 제러드 슈워츠가 작곡한 'In Memoiam'은 독주 첼로와 현악사중주를 위한 곡으로 명상적이고도 애상적인 분위기가 주조를 이룬다. 로리 레이 트만의 연가곡 'The Seed of Dream'은 게토의 참상을 강렬하게 표현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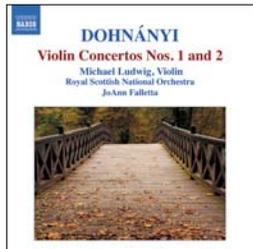
8.559324
토흐: 바이올린소나타 2번, 피아노오중주, 블루레스크 외
스펙트럼 콘서트 베를린
 에른스트 토흐(1887~1964)는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다. 작곡가는 물론 교육자와 음악이론서의 저자로도 활약했으며, 교향곡 3번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본 음반에는 대전전 베를린에서 활동하던 당시의 초기작 2편, 미국으로 망명하던 해인 1938년에 작곡한 피아노오중주, 그리고 최만년작의 하나인 첼로 독주를 위한 3개의 즉흥곡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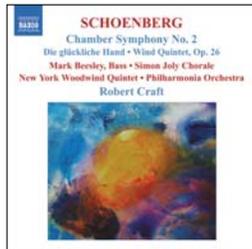
8.570529
루셀: 교향곡 2번, 모음곡 F장조, 봄의 축제를 위하여
로알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스테판 드네브
그라모폰 추천음반
 루셀의 교향곡 3번으로 디아파송 금상을 수상했던 드네브/로알 스코티시 내셔널이 같은 작곡가의 두번째 교향곡에 도전하였다. 루셀은 고전적인 형식미와 인상주의 영향을 접목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스타일을 구사했던 작곡가다. 교향곡 2번은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낸 작품이며, 교향시 '봄의 축제'는 제목 그대로 봄의 화사한 기운을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이다.



8.559356
앤더슨: 캐롤모음곡, 춤추는 고양이, 재즈 피치카토, 종의 노래 외
앨리스테어 영(피아노)
BBC 콘서트 오케스트라
레너드 슬라트킨
 미국 라이프 뮤직의 대가 르로이 앤더슨의 관현악 시리즈의 2탄. 앤더슨은 정규 클래식 교육 과정을 거쳤지만 그의 음악은 팝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폭넓은 대중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의 대표곡인 '춤추는 고양이', '재즈 레가토', '재즈 피치카토', '종의 노래'와 더불어 귀에 익은 캐럴 선율들을 담은 '현을 위한 캐럴 모음곡', 그리고 헨델의 '세렐레' 중의 아리아를 편곡한 '주피터의 노래' 등을 수록.



8.570833
도흐나니: 바이올린협주곡 1,2번
마이클 루드비히(바이올린)
로알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조안 팔레타
 동요주제의 변주곡으로 유명한 헝가리 작곡가 에르뇌 도흐나니(지휘자 도흐나니의 할아버지)는 교향곡, 피아노협주곡, 바이올린협주곡을 각각 2개씩 작곡하였다. 초절기교와 서정성이 결합된 1번은 자주 연주되는 작품은 아니지만 특히 브람스 풍의 느린악장이 인상적이다. 헝가리의 정취와 창의적인 악상을 담은 2번은 20세기 중반에 작곡된 대표적인 바이올린협주곡의 하나로 평가되는 걸작이다.



8.557526
쇤베르크: 챔버 심포니 2번, 목관오중주, 운명의 손
뉴욕 목관오중주단
사이먼 줄리 합창단
필하모니아
로버트 크래프트
 챔버 심포니 2번은 쇤베르크의 후기 관현악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무조와 12음 기법에서 벗어나 선율적이면서도 극적인 음악전개를 담은 1악장과 고도의 폴리포니로 직조된 2악장이 색다른 조화를 이룬다. 판타마임을 위한 음악 '운명의 손'과 작곡가의 무조성향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난해한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 목관오중주와 함께 수록되었다.



8.570397
보테시니: 바이올린과 더블베이스를 위한 그랑 듀오 콘체르토 외
토마스 마틴(더블베이스) 외/ 잉글리시 체임버/ 앤드류 리튼
 보테시니는 더블베이스의 파가니니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랑 듀오 콘체르토는 원래 두 대의 더블베이스를 위한 작품이지만 파가니니의 제자 시보리가 더블베이스와 바이올린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위해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독주악기로서의 더블베이스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랑 콘체르토 F장조와 더블베이스와 클라리넷의 색다른 어울림을 위한 듀엣 등 수록. ASV음원의 재발매 음반.



8.559377
우리반:
Ashberyana, Josquiniana, Fenton Song 1&2
다 카메라 오브 휴스턴
 찰스 우리넨의 신작 실내악과 성악곡을 담은 음반. 현악사중주를 위한 '조스퀼리아나'는 르네상스 작곡가 조스캥 데프레의 상송 6곡을 자신의 스타일로 재해석해낸 독특한 작품. 시인 존 애쉬부리의 시에 기초한 바리톤과 트럼본 그리고 현악사중주를 위한 성악곡 '애쉬베리아나', 제임스 펜톤의 시에 곡을 붙인 '펜톤 송 1 & 2', 또다른 조스캥 리메이크인 '아베 크리스티 오브 조스캥'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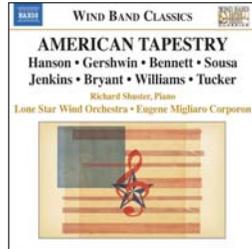
8.570583
프롤로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니콜라스 퀴케르트 & 루돌프 요아힘 퀴케르트(바이올린)/ 크리스티나 밀러(피아노)
 이고르 프롤로프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이며, 모스크바 음악원의 명교수다. 그의 음악적 배경은 정통 클래식이지만, 그의 작품들은 재즈나 대중음악적인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포기와 베토 환상곡, 바흐 스타일을 패러디한 유쾌한 디베르티먼트의 시에 곡을 붙인 '펜톤 송 1 & 2', 또다른 조스캥 리메이크인 '아베 크리스티 오브 조스캥' 등을 함께 수록.



8.570737
닐센: 교향곡 1번 & 6번 'sinfonia semplice'
 덴마크 국립 방송교향악단
 미카엘 쇤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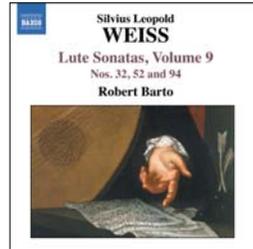
Classicstoday 10/10

Dacapo를 통해 발매되었던 쇤반트의 닐센 교향곡시리즈가 낙소스를 통해 재발매될 예정이다. Classicstoday 10/10, BBC 뮤직 매거진 만점, 포노포럼 만점, 2001년 덴마크 뮤직어워드 관현악부문을 수상한 명연으로 닐센 교향곡의 가장 뛰어난 해석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열기로 가득한 열광적인 교향곡 1번과 제목 그대로 간결한 음악 속에 신비로운 악상을 담아낸 교향곡 6번이 가장 먼저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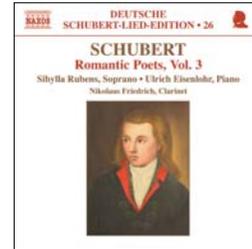


8.570968
American tapestry
 (성조기, 워싱턴포스트 마치, 랩 소디 인 블루 외)
 리처드 슈스터(피아노)
 론 스타 윈드 오케스트라
 유진 밀리아로 코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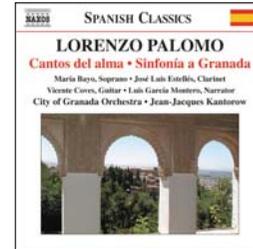
가장 미국적인 관악밴드 레퍼토리들을 담은 음반. 영화음악의 대가 존 윌리엄스가 감각적으로 편곡한 미국 국가 '성조기', 행진곡의 왕 수자의 대표곡 '워싱턴 포스트 마치', 거쉬윈의 '랩 소디 인 블루'의 관악밴드 버전, 미국을 대표하는 오페라작품인 핸슨의 메리마운트에서 발췌한 모음곡, 9/11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곡인 터커의 세레머니 팡파르, 베넷의 미국 옛 춤곡 모음곡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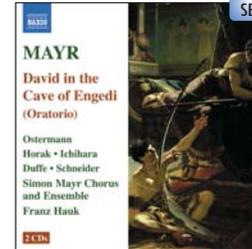
8.570551
바이스: 류트소나타 32, 52, 94번
 로버트 바르토(바로크 류트)
 바흐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레오폴트 바이스는 당대의 대표적인 류트 비르투오조이자 작곡가로 독일 음악계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류트 소나타들은 전형적인 바로크 춤곡모음곡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중 52번은 연주시간 30분이 넘는 큰 스케일과 반음계를 적극 활용한 모험적인 작품이다. 32번은 13현 류트의 폭넓은 저음역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94번은 간결한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8.557832
슈베르트: 낭만시에 의한 가곡들 Vol.3 (바위 위의 목동 외)
 시빌라 루벤스(sop)/ 니콜라우스 프리드리히(cel)/ 올리히 아이젠로어(p)
 낙소스 슈베르트 에디션의 26번째 음반. 노발리스, 슈라이버, 솔레겔 등의 낭만시에 곡을 붙인 가곡들을 수록하였다. '델피네의 노래', '꽃의 메시지', '가을밤 달에게', '눈물의 찬양' 등과 더불어 클라리넷 오블리가토가 덧붙은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가곡의 하나인 '바위 위의 목동'도 함께 수록하였다. 리트와 종교음악에서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는 독일의 정상급 소프라노 시빌라 루벤스의 청아한 음성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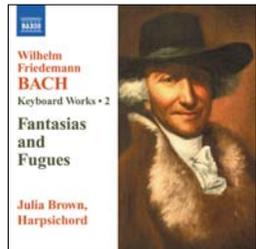
8.570420
팔로모: 칸토스 델 알마, 신포니아 그라나다
 마리아 레야(소프라노) 외/ 그라나다 오케스트라/ 장 자크 칸토로프
 로렌스 팔로모는 현존 스페인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칸토스 델 알마(영혼의 노래)는 소프라노와 클라리넷이 음악적 대화를 펼쳐나가는 독특한 형식의 성악곡이며, 소프라노와 기타를 위한 그라나다 심포니는 플라멩코의 고향이자 아랍과 유대 문화가 혼재된 이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표현한 작품이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의 청아한 음성이 빛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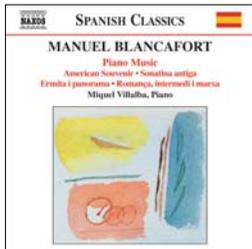
8.570366-67
마이어: 오라토리오 <엔게디 동굴의 다윗>
 여러 가수들/ 지몬 마이어 합창단과 앙상블/ 프란츠 하우크
 마이어는 베토벤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다. 바이에른 출신이지만 북이탈리아를 무대로 활동하였으며, 로시니 이전의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 오페라작곡가로 손꼽힌다. <엔게디 동굴의 다윗>은 베니스의 한 여성구원원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모든 등장인물에 여성을 기용한 점이 독특하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과 갈등, 요나단과의 우정, 미갈과의 사랑 이야기, 고전시대 오라토리오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8.558204-25
호아킨 로드리고 포트레이트 여러 음악가들
 호아킨 로드리고는 시각장애의 벽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작곡가로 존경을 받았던 인간승리의 지표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기타음악 뿐만 아니라 관현악, 피아노음악, 성악곡 등의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스페인의 민속적인 특징이 농후한 다수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대표작들을 수록한 2장의 CD와, 로드리고 전 물에 여성을 기용한 점이 독특하다. 다윗과 사울의 만남과 갈등, 요나단과의 우정, 미갈과의 사랑 이야기, 고전시대 오라토리오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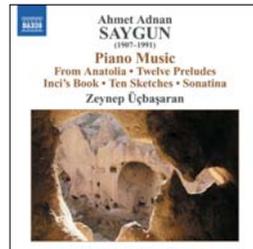
8.570530
W.F. 바흐: 건반작품집 Vol.2 (판타지와 푸가)
 줄리아 브라운(하프시코드)
 JS 바흐의 큰 아들 빌헬름 프리데만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으며, 아버지에게 필적하는 건반연주자로 이름이 높았다. 그의 건반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체득한 전통적인 대위법과 새로운 유행이 되었던 감성주의(empfindsamkeit)가 적절히 조합된 특징을 보여준다. 8개의 푸가는 그의 건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며, 환상곡들은 감성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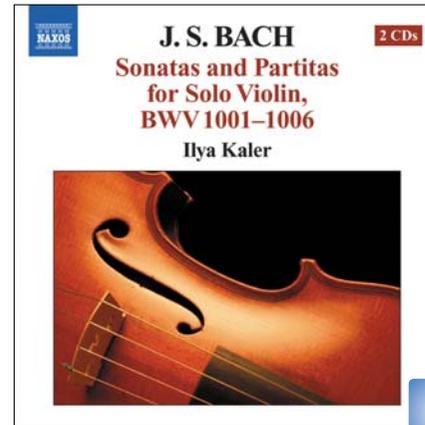
8.557335
블랑카포르트: 피아노작품집 Vol.4
 미겔 빌랄바(피아노)
 카탈루냐 출신의 마누엘 블랑카포르트는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파야로 이어져 내려온 스페인 피아노음악계의 적자로 손꼽히는 작곡가다. 미국여행의 감흥을 담은 '아메리카의 추억'의 마지막 악장은 찰리 채플린을 기리는 작품이며, 바흐와 스키타리에서 영감을 얻은 '옛 형식의 소나티나', 민요선율을 인상주의의 서법으로 표현한 '에르미타와 파노라마', 서정미로 가득한 '카바티나와 대화' 등을 수록.



8.570590-91
로시니: 피아노작품집(노년의 잘못된 중 오두막 앨범 외)
 알레산드로 마랑고니(피아노)
 로시니는 만년을 보냈던 파리에서 '노년의 잘못된'이라는 14편 분량의 소품시리즈를 작곡하였다. 성악곡, 피아노, 실내악 등이 망라된 이 시리즈 중에서 '오두막 앨범'이라는 타이틀의 7편 전곡과 9편 중 피아노를 위한 작품 4곡을 수록하였다. 쾌활한 '작은 중국 폴카', 감성적인 '욕실의 작은 왈츠', 향수어린 '상송네트', 향토적인 색채의 '사랑스런 사보이' 등등 유틘와 선율미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소품들로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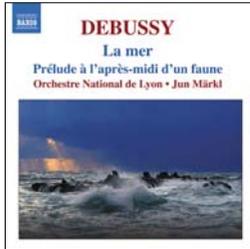
8.570746
사이군: 피아노작품집 제이넵 위샤바샤란(피아노)
 아드난 사이군(1907-91)은 터키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다. 젊어서는 바르톡과 함께 소아시아 일대의 민속음악채집에 헌신하였으며, 서양음악기법을 빌려서 자국의 전통음악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일생을 바쳤다. 터키 전통춤의 독특한 리듬(악사리듬)에 기반을 둔 12개의 전주곡과 10개의 스케치,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작품모음인 인치의 음악책, 라벨의 작품을 연상케하는 간결명료한 소나티나 등을 수록.



8.570277-78
JS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 일라 칼러(바이올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시벨리우스 콩쿠르, 파가니니 콩쿠르를 연거푸 석권했으며, 리스트만 음대, 인디애나 음대 등에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었던 낙소스의 간판 바이올리니스트 일라 칼러의 최신보. 이미 파가니니와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통해 크게 호평을 얻었던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뛰어난 음악성과 화려한 기교는 바흐의 이 위대한 결작에서도 여전히 위력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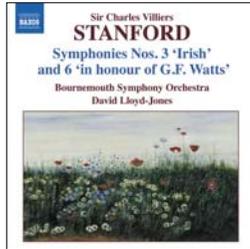
8.570483
하이든: 바이올린협주곡 Hob. VII 1,3,4
 아우구스틴 하델리히(vn)/ 필른 첼머 오케스트라/ 헬무트 뮐러-브뤼히
 하이든은 9곡의 바이올린협주곡을 작곡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존하는 것은 불과 세 작품이다. 에스테르하지 악단의 악장이었던 루이지 토마시니를 위해 작곡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들은 단정한 고전 협주곡양식과 독주자의 화려한 기교가 적절히 배합되어있기에 각종 콩쿠르나 입시곡으로도 자주 이용된다. 2006년 인디애나 콩쿠르 우승자인 아우구스틴 하델리히가 연주를 맡았다.



8.570759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바다, 어린이 세계 외 윤 매르크/ 리옹 국립 교향악단
 차세대 거장 윤 매르크의 낙소스 데뷔음반. 현재 리옹 국립교향악단과 라이프치히 방송교향악단을 맡고 있는 그는 첼리비다케의 제자이자 일본계 혼혈로 특히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프랑스의 정성음악단인 리옹 교향악단과 함께 드뷔시의 대표관현악곡들을 연주하였다. 양대 관현악 걸작인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과 '바다', 피아노곡 '어린이세계'의 관현악편곡을 함께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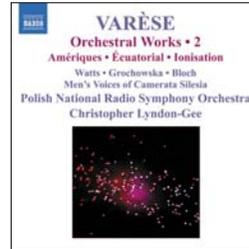
8.570709
쿨라우: 피아노소나타 Op.59 & 피아노소나타나 Op.20 예뇌 안도(pf)
 베버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쿨라우는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 활약했으며, 뛰어난 피아노교사였다. 교습목적으로 작곡된 3곡의 소나타나 Op.20은 모차르트를 연상시키는 쾌활한 악상이 매력적인 작품들로 특히 1번은 피아노교습생들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연주해봤을 친근한 작품이다. 3편의 소나타로 구성된 Op.59 역시 어렵지 않은 기교와 간결명료한 구성이 돋보인다. 낙소스의 간판 예뇌 안도의 최신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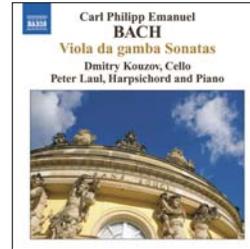
8.570355
스탠퍼드: 교향곡 6번, 교향곡 3번 '아이리쉬' 데이비드 로이드-존스/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탠퍼드는 엘가 이전 영국음악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곡가로, 멘델스존, 슈만과 유사한 정서의 교향곡을 7곡 남겼다. 3번은 제목 그대로 자신의 고향 아일랜드의 정서를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으로 작곡가의 가장 인기 교향곡이다. '위대한 예술가 조지 프레데릭 와츠를 기리며'라는 부제가 붙은 6번은 조각가 겸 화가 GF 와츠를 기리는 곡으로, 로맨틱 교향곡의 전형을 보여주는 당당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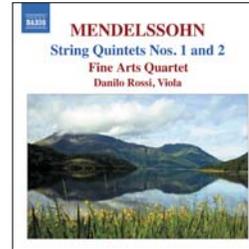
8.570177
오자와: 피아노협주곡 2번, 교향곡 2번 에카테리나 사란체바(pf)/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러시아인 필하모닉
 히사토 오자와(1907-53)는 1930년대에 보스턴과 파리에서 유학했는데, 본 음반에 수록된 두 작품은 모두 파리 체류 중에 완성된 것들이다. 협주곡 2번은 일본 고유의 선율에 재즈와 인상주의 등을 접목시킨 작품이며, 교향곡 2번은 일종의 관현악협주곡의 속성을 지닌 독특한 작품으로 앙갈리시혼, 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루트/바순/비올라/첼로 편성 사중주가 차례로 독주악기로 등장하는 2악장이 인상적이다.



8.557882
바레즈: 아메리크, 비중 21.5, 이온화, 하이퍼프리즘 외 크리스토퍼 린든-지/ 폴란드 국립 방송교향악단
 프랑스 태생의 미국작곡가 에드워드 바레즈는 전자음악의 선구자이자, 아방가르드의 대가로서 20세기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본 음반에는 '아메리크', '이오니제이션', '하이퍼프리즘'과 같은 관현악 걸작들과, 창의적인 플루트 독주곡 '덴서티 21.5', 성악곡 '야상곡'과 '질은 어둠', 남성합창과 온데 마르티노 그리고 관현악을 위한 '에쿠아토리얼' 등 작곡가의 대표작들을 수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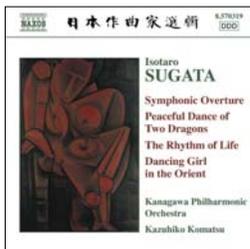
8.570740
CPE 바흐: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 드미트리 쿠조프(vc)/ 페터 라울 (cemb & pf)
 바흐의 둘째 아들인 카를 필리프 엠마누엘은 바흐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음악가로 손꼽힌다. 음반에 수록된 세 곡의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는 그가 프리드리히대왕의 궁정하프시코드주자로 봉직할 당시에 완성한 것들로,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조화를 이룬 뛰어난 작품들이다. 드미트리 쿠조프는 현대첼로를 사용하였지만, 당시의 고아한 악풍을 무난하게 재현해내었다.



8.570488
멘델스존: 현악오중주 1번 & 2번 파인 아트스 현악사중주단 + 다닐로 로시(va)
 멘델스존의 현악오중주 1번은 '한여름밤의 꿈' 서곡과 같은 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음악가로 손꼽힌다. 음반에 수록된 세 곡의 비올라 다 감바 소나타는 그가 프리드리히대왕의 궁정하프시코드주자로 봉직할 당시에 완성한 것들로,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기교가 조화를 이룬 뛰어난 작품들이다. 드미트리 쿠조프는 현대첼로를 사용하였지만, 당시의 고아한 악풍을 무난하게 재현해내었다.



8.559364
코릴리아노: 레드바이올린, 바이올린소나타 톰슨: 8개의 초상 외 필립 킨트(vn)
윌리엄 울프렘(pf)
 코릴리아노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레드 바이올린 카프리스는 자신이 음악을 맡았던 영화 '레드 바이올린'의 테마를 자유로운 변주곡 형태로 재가공한 작품이다. 바이올린소나타는 그의 초기대표작으로 두 악기의 화려한 인터플레이가 돋보이는 마지막 악장이 인상적이다. 함께 수록된 3편의 버질 탐슨의 작품은 모두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음악으로 표현한 독특한 성격의 작품들이다.



8.570319
수가타: 교향서곡, 두 마리 용의 평화로운 춤, 샴의 리듬 외 카주히코 코마츠/ 카나가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타로 수가타(1907-52)는 서구의 음악선법에 일본 전통음악적 요소를 조화시켰던 작곡가다. 교향적 서곡은 힌데미트의 영향과 일본 전통 타악기들의 이국적인 울림을 접목한 작품이다. '두 마리 용의 춤'은 궁중무용 가가쿠의 한 종류인 나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이며, '샴의 리듬'은 스트라빈스키의 일본적인 선율을 스트라빈스키의 원시주의 스타일로 표현한 작품이다.



8.559376
제임스 콘: 교향곡 2번, 7번 외 박탕 조르다니아, 커크 트레버/ 슬로바키아 방송교향악단
 제임스 콘은 8편의 교향곡을 작곡했으며, 교향곡 2번으로 벨기에의 퀸 엘리자베스 상을 수상했다. 출세작인 교향곡 2번과 함께 수록된 교향곡 7번은 모두 전통적인 4악장 구성과 보수적인 조성체계를 적용한 작품들이며,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변주곡과 매력적인 소품인 왈츠가 수록되었다.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2005년에 사망한 박탕 조르다니아가 수록곡의 절반을 지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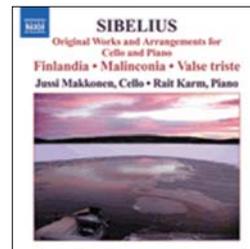
8.559297
코플랜드: 피아노협주곡, 울드 아메리카 송 1,2집, 부드러운 대지 벤저민 파스터넥(pf)/ 세인트 찰스 싱어즈/ 로버트 헨슨/ 열진 심포니
 코플랜드의 피아노협주곡은 일년 앞서의 작품인 거인의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블루스, 재즈 등의 대중음악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국적인 색채의 작품이다. '부드러운 대지'는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동명의 오페라에서 발췌한 3개의 관현악곡을 엮은 모음곡으로 역시 미국의 향토색으로 채색된 작품. 두 세트의 옛 미국 노래는 원래 피아노반주의 합창곡이지만, 관현악반주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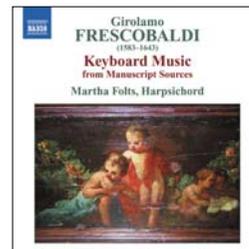
8.559353
아이브즈: 관현악 세트 1-3번 제임스 싱클레어/ 말피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찰스 아이브즈는 독립적으로 작곡된 관현악소품들을 엮은 모음곡 형식작품에 'Suite'라는 종래의 용어 대신 'Set'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첫 세트인 '뉴잉글랜드의 세 장소'는 흔히 '뉴잉글랜드의 심포니'로 불리는 작곡가의 대표 관현악곡. 두 번째 세트는 합창을 동반한 장엄한 피날레가 인상적이며, 미완성으로 남겨졌던 세 번째 세트는 후배 작곡가들에 의해 마무리되어 이 음반에 최초로 녹음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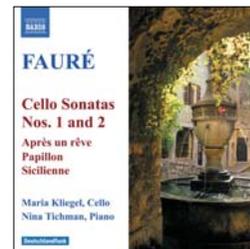
8.570579
복스테후데: 하프시코드 작품집 Vol.1 라스 울릭 모르텐센(cemb)
 존 홀로웨이와 함께 했던 복스테후데의 실내악시리즈로 큰 화제를 낳았던 덴마크의 정성급 하프시코드주자 모르텐센이 들려주는 복스테후데 건반작품집. 다카포의 음원이 낙소스를 통해 재발매된 것으로, 바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작곡가의 뛰어난 재능을 확연히 해주는 음반이다. 기교적인 토카타에서 섬세하고 선율적인 프랑스 풍의 춤곡 모음곡들, 화려한 파르티타와 칸초나 등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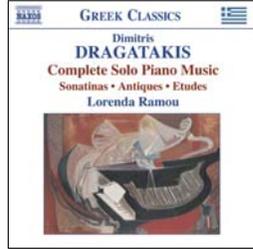
8.570797
시벨리우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들 유시 마코넨(vc)/ 라이트 카름(pf)
 시벨리우스는 첼로를 위한 소품은 거의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남긴 여러 작품들의 서정적인 선율들은 첼로의 부드러운 중저음과 아주 잘 어울린다. '핀란드어', '슬픈 왈츠'와 같은 인기 관현악곡은 물론, '검은 장미', '첫 키스', '꿈이었나?' 등의 서정가곡들, 그리고 '야상곡', '로망스', '룬디노' 등의 피아노 소품들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이중주로 훌륭히 편곡되었다.



8.570717
프레스코발디: 건반 작품집 마르타 폴츠(cemb)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1583-1643)는 르네상스/바로크 전환기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건반 음악의 대가였다. 그의 건반작품들은 자국은 물론, 유럽 북부의 작곡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음반은 1630년에서 1650년 사이에 필사된 다양한 소스를 통해 전해져오는 작곡가의 작품들을 수록한 것으로, 토카타, 칸초나, 판타지아, 카프리치오, 코렌테와 같은 당대에 유행하던 기악양식들이 망라되어 있다.



8.557889
포레: 첼로소나타 1, 2번 마리아 클리겔(vc) 니나 티흐만(pf)
 포레가 완성한 두 첼로소나타는 작곡가의 천부적인 선율감각과 우아한 서정성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1차대전 중에 완성한 1번은 유창한 2악장과 현란한 3악장의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2번의 경우는 자신의 작품 '장례송가'를 편곡한 2악장이 인상적이다. 인기 첼로소품인 '엘레지'와 유명한 가곡 '꿈꾸고 난 뒤'의 첼로편곡, 극부수음악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중의 '시실리안느'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8.570789
드라가타키스: 피아노작품전집 (소나타 1,2번 외)
로렌다 라모우(pf)
 그리스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인종적 배경들이 혼재된 독특한 전통음악을 가지고 있다. 디미트리스 드라가타키스(1914-2001)는 그리스 북서부 에피루스의 전통음악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일생을 바쳤다. 음반에는 작곡연대가 불분명한 극초기작에서부터 최후작인 '독백 4번'까지 작곡가의 일생에 걸쳐서 완성된 다양한 피아노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8.570368
D. 스카를라티: 건반 소나타 vol.9 프란체스코 니콜로시(pf)
 나폴리아카데미의 대표인물인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아들인 도메니코는 바흐, 헨델과 같은 해인 1685년에 태어났다. 550편이 넘는 건반소나타가 그의 가장 큰 음악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카를라티 소나타시리즈의 9번째인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소나타들 중 대작에 속하는 K52, K170, K176을 비롯한 13편의 소나타가 수록되었다. 프란체스코 니콜로시는 1980년 제네바 콩쿠르에서 1위없는 2위를 차지했던 연주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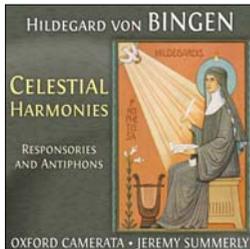
8.570455
레거: 코랄환상곡 '내 주는 강한 성이오', 작은 코랄 프렐류드 외 마틴 웰첼(트리어대성당 오르간)
 막스 레거는 바흐 이후 독일오르간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곡가다. 본 음반은 루터교 코랄 선율에 의한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이오' 선율에 의한 장대한 코랄환상곡 Op.27을 비롯, 30개의 작은 코랄프렐류드 Op.135, 서정적인 소품인 '로만체', 작곡가의 가장 유명한 오르간 작품의 하나인 전주와 파사칼리아 등이 수록되어 있다.



8.557960-62
헨델: 허큘리스(헤라클레스) 페터 코이(허큘리스) 외/ 옹예 칸토라이/ JC 마르티니/ 프랑크 푸르트 바로크
 '허큘리스'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의 중간성격의 작품으로 작곡가는 '음악극'로 이 작품을 칭했다. 타이틀은 '허큘리스'지만 실제 드라마를 지탱해나가는 중심인물은 아내 데자니라다. 헨델의 여성배역들 중 가장 강렬한 캐릭터의 하나로 분노의 아리아 '나는 어디로 날아가야하나'가 특히 유명하다. 신에 메조소프라노 니콜라 웨미스가 데자니라를, 바흐의 종교음악에서 맹활약 중인 페터 코이가 허큘리스를 맡았다.



8.570467
아일랜드: 가곡집 로데릭 윌리엄스(bar)/ 이안 번사이드(pf)
 영국 작곡가 존 아일랜드는 스탠퍼드의 제자였다. 관현악분야에서 주로 두각을 드러내었지만, 영국의 독특한 감성을 담아낸 91편의 가곡들도 유명하다. 그의 가곡들은 드뷔시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세련된 피아노반주와 소박한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특히 토마스 하디의 시에 곡을 붙인 3개의 노래 중의 '그녀의 노래'는 작곡가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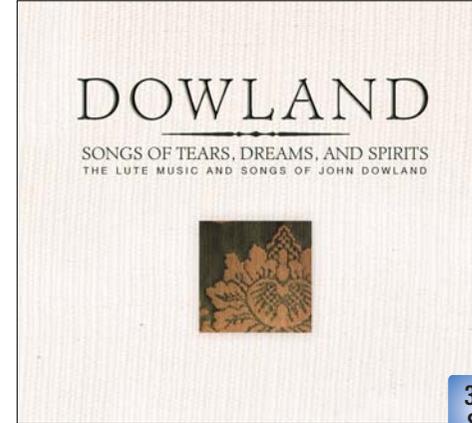
8.557983
힐데가르트 폰 빙엔: 성스러운 하모니 제레미 섬벌리/ 옥스퍼드 카메라타
 12세기 종교인이자 작곡가였던 빙엔의 힐데가르트는 작품이 남아있는 최초의 여성작곡가이다. 8살에 출가한 이래 80평생을 수녀원에서 수도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비전을 신비한 단선율 성가 형태의 찬트로 남겼다. 그의 작품집 '천국 계시의 심포니'는 77곡의 성가와 1편의 음악극의 모음집이다. 본 음반에는 그 작품집에서 발췌한 8편의 레스폰소리와 안티폰을 수록하였다.



8.570708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위한 음악들 레베카 킷(sop)/ 잉글랜드 헬리컨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음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명과 무대장치가 빈약한 르네상스시대 음악은 극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본 음반은 토마스 몰리, 로버트 존슨, 존 다울랜드, 윌리엄 버드, 알폰소 페라보스코 등의 동시대 작곡가들이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기초하여 완성한 30여편의 류트 반주의 성악곡과 류트 독주곡들을 수록하였다.



8.570735
텔레만, JS 바흐: 오보에 다모레 협주곡집 토마스 스테이시(오보에 다모레)/ 토론토 챔버 오케스트라/ 케빈 말론
 오보에다모레는 오보에와 잉글리시 혼의 중간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다. '사랑의 오보에'라는 악기이름대로 부드러운 음색을 자랑한다. 현재 뉴욕 필의 잉글리시 혼 주자인 토마스 스테이시가 JS 바흐와 텔레만의 오보에다모레협주곡 두 곡씩을 녹음하였다. 바흐의 BWV1053과 1055는 현재 하프시코드협주곡 형태로 전해져오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작품의 원형이 오보에다모레협주곡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8.503188

존 다울랜드: 눈물, 꿈, 영혼의 노래들

3CD SET

- [CD1] Flow My Tears & Other Lute Songs 8.553381
- [CD2] Fancies, Dreams & Spirits 8.557586
- [CD3] Dowland's Tears 8.557862

낙소스를 통해 발매되었던 존 다울랜드의 음반 3종을 하나의 박스 세트로 묶은 음반. 영국을 대표하는 류트주자 나이젤 노스가 연주한 두 장의 류트 솔로곡집과 카운터테너 스티븐 리카르츠가 노래하고 도로시 리벨이 류트로 반주한 류트송 음반이 포함되었다.



8.503194

Night Music

기존의 낱장으로 발매되었던 Night Music 시리즈의 음반 세 장(8.556815-817)을 박스로 묶은 것이다. 밤의 고요와 잘 어울리는 클래식 명곡 39곡을 수록하였다.

3CD SET

- [CD1] 모차르트-로망스, 베토벤-월광소나타, 바흐-브란덴부르크협주곡 1번, 모차르트-교향곡 40번, 차이코프스카-멜로디, 그리그-봄에, 고다르-조슬랭의 자장가, 파헬벨-카논, 하이든-현악사중주 Op.76-2 안단테, 드뷔시-월광, 토렐리-트럼펫협주곡, 쇼팽-피아노협주곡 2번, 포레-시실리아나
- [CD2] 차이코프스카-백조의 호수, 모차르트-피아노소나타 K332, 비발디-봄 2악장, 하이든-교향곡 96번 2악장, 베토벤-피아노협주곡 4번 2악장, 라흐마니노프-보칼리제, 그리그-솔베이의 노래, 헨델-수상음악 아다지오, 드뷔시-현악사중주 안단테노, 모차르트-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헨델-합주협주곡 라르고, 슈베르트-악흥의 순간, 멘델스존-현악삼중주
- [CD3] 포레-파반느, 차이코프스카-슬픈 상송, 마르첼로-오보에협주곡 2악장, 베토벤-교향곡 1번 안단테, 보케리니-첼로협주곡 아다지오, 멘델스존-노래의 날개위에, 비제-아를르의 여인 아다지오, 알비노니-아다지오, 하이든-현악사중주 Op.76-4 아다지오, 모차르트-엘비라 마디간, 코렐라-크리스마스협주곡, 베토벤-고별소나타 안단테, 모차르트-찰츠부르크 교향곡 K138 안단테



8.503192

Time of the Templars
(성전기사 시대의 음악들)

3CD SET

- [CD1] Music of a Knight – 중세 성가, 미네징거들의 노래, 카르미나 부라나, 에스탐피 외
- [CD2] Music of the Church – 중세 그레고리안 찬트
- [CD3] Music of the Mediterranean – 시리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터키, 아라비아의 전통음악들

성전기사(templar)는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200여년동안 진행되었던 십자군 전쟁의 와중에 두각을 드러내었던 기사집단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을 보호할 명목으로 세워진 이 기사단은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수많은 기사단들의 모델이 되었다. 본 음반은 템플러들이 활동하던 시절의 음악을 세 장의 CD에 나누어 담았다. 첫 장에는 발터 폰 포겔바이데, 사자왕 리처드와 같은 기사출신 미네징거들의 노래와 떠돌이 수도생들의 노래인 카르미나 부라나 등이 수록되었고, 두 번째 CD에는 당시의 교회음악인 그레고리안 찬트, 마지막 CD에는 템플러들의 활동무대였던 지중해연안의 여러 지역들의 전통음악을 수록하였다.



8.504040

Of Beauty & Light:
The Music of Philip Glass

3CD SET

- [CD1] Symphony No. 4 'Heroes' & The Light 8.559325
- [CD2] Symphony No. 2 & 3 8.559202
- [CD3] Violin Concerto/ Company/ Prelude from AKHNATEN 8.559056
- [CD4] Sonic Rebellion Collection 8.570760
Music of Glass, Penderecki, Nancarrow, Cage, Henze, Riley, Wurlin, Varese, Crumb, Ligeti, Gubaidulina, Adams, Part etc.

미니멀음악의 대가 필립 글래스의 대표 관현악곡들을 하나의 박스에 모았다. 그동안 낙소스를 통해 발매되어 큰 호평을 얻었던 교향곡 2,3,4번과 바이올린협주곡, 그리고 대표적인 현대음악가들의 작품을 총 망라한 컬렉션 음반까지 모두 4장의 CD로 구성되었다. 3편의 교향곡은 모두 마린 알숨이 지휘한 본머스 심포니가 연주를 맡았고, 바이올린협주곡은 세조솔로이스츠의 악장인 아델레 안소니가 독주를, 타쿠오 유아사가 지휘하는 얼스터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맡았다.



Naxos Histor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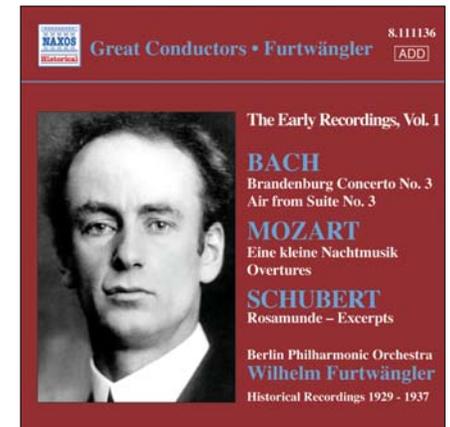
www.naxos.com



8.111282

쇼팽: 피아노소나타 2번, 발라드 4번, 뱃노래, 스케르초 1번 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피아노)

템포와 다이내믹의 곡을 보여주는 호로비츠의 쇼팽은 오랜 기간동안 애호가들의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1950년에 녹음된 소나타 2번은 이러한 거장의 독특한 쇼팽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엄한 소리의 파노라마를 담은 연주로 정평났었던 뱃노래의 1957년 녹음이 함께 수록되었으며, 발라드 4번은 49년과 52년의 녹음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같은 곡에 대한 거장의 해석상의 차이를 서로 비교하게끔 배려하였다.



8.11136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초기 레코딩 Vol.1 JS 바흐, 모차르트, 슈베르트

푸르트벵글러가 1929년부터 1937년 사이에 베를린 필과 함께 완성한 녹음들을 모은 음반. 20세기 초의 바로크음악 연주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브란덴부르크협주곡 3번과 관현악모음곡 3번의 아리아,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지크', '피가로의 결혼'과 '후궁탈출'의 서곡, 끝으로 슈베르트의 극부수음악 '로자문데'에서 발췌한 서곡과 발레음악 등을 수록하였다.



8.111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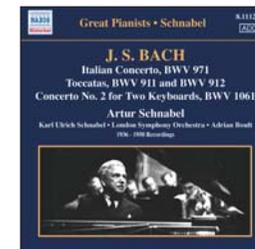
바그너: 관현악하이라이트(로엔그린, 파르지팔 외), 브람스: 대학축전서곡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세르게이 쿠세비츠키

세르게이 쿠세비츠키는 1924년부터 49년까지 장기집권하면서 보스턴 심포니를 미국의 정상급 악단으로 성장시켰던 장본인이었다. 본 음반에는 1946년부터 49년까지 그가 남긴 녹음들이 수록되었다. 드라마틱하게 연출된 방황하는 화란인 서곡, 서정적으로 다듬어진 지크프리트 전원곡, 화려함을 한껏 드러내는 대학축전서곡 등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거장의 풍모를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8.111313

세고비아 1950년대 미국 레코딩 vol.5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 기타 오중주, 탠스만 카바티나 외 세고비아는 과거의 작품들만 다루었던 연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현대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했으며, 녹음 역시 다수 남겼다. 본 음반은 1950년대 레코딩 중에서 현대곡들을 골라 모았다.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기타 오중주와 소품들, 탠스만의 카바티나, 라우로의 베네수엘라 춤곡, 로드리고의 사라반다 레하나 등의 이국적인 색채가 가득한 현대작품들을 거장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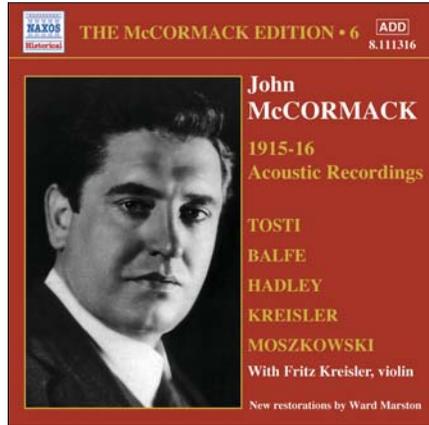
8.111286

JS 바흐: 이탈리아협주곡, 반음계환상곡과 푸가 외 아르투르 슈나벨(pf) 상업적으로 출판되었던 슈나벨의 바흐 녹음을 모두 수록하였다. 1938년 녹음인 이탈리아협주곡 BWV971, 아들 카를 울리히와 함께 애드리안 볼트/런던 심포니와 협연했던 두 대의 건반을 위한 협주곡 BWV1061, 각각 1937년과 48년에 녹음된 2개의 토카타(BWV911, 912)와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BWV903, 죽기 1년전의 녹음인 평균율 중의 BWV850을 수록.



8.111317

피치니: 알 피에몬테, 돌로메티의 시, 포스토이나의 동굴 외 카를로 알베르토 피치니/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카를로 피치니(1905-81)의 대표 관현악작품들을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수록하였다. 관현악 삼부작 '알 피에몬테'는 북이탈리아 피에몬테 지방의 역사와 자연풍광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마지막 악장은 이 지역에 위치한 피아트 자동차 공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클래식 스타일의 스케르초와 코렐리 오마주는 옛 음악에 대한 작곡가의 경애를 담은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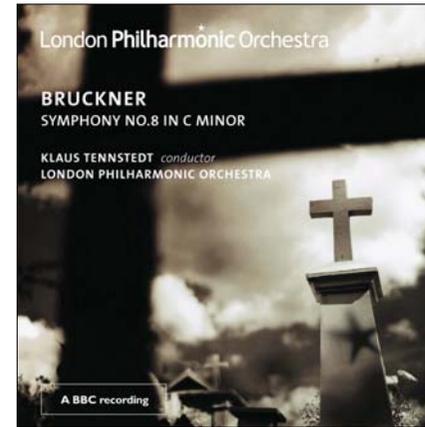
8.111316
존 맥코맥 에디션 Vol.6
 토스티, 발페, 해들리, 크라이슬러, 모즈코프스키 외
 존 맥코맥은 먼저 정통 오페라 가수로 명성을 얻었지만, 대중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였다. 본 음반은 빅토리아 발라드, 이탈리아 송, 켈트 민요, 빈 로맨틱 송, 미국 대중가요 등의 다양한 장르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모차르트 돈조반니 중의 'Il mio tesoro'에서는 오페라 가수로서의 그의 명성 또한 경험하게 된다. 일부 곡에서는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이 함께 하였다.



8.111142-44
로자 폰셀 미국 레코딩 (1939-54)
 토스티, 슈베르트, 바그너, 베토벤, 모차르트, 비제 외
 마리아 칼라스가 '우리 중의 가장 위대한 가수'로 칭송했던 로자 폰셀. 그는 20세기 중반 19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여왕으로 군림했다. 본 음반에는 1939년 그가 남긴 마지막 스튜디오 레코딩과 더불어 은퇴 이후인 1954년 팬들의 간청에 못이겨 자신의 저택이었던 빌라 파체에서 녹음했던 음원들을 3장의 CD에 나누어 담았다. 독일리트와 오페라 아리아, 그리고 각종 종교성악곡들을 골고루 노래하였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LPO**

www.lpo.co.uk



LPO-0032

브루크너: 교향곡 8번 (노바크 에디션)
 클라우스 텐슈테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은 작곡가가 남긴 9편의 교향곡 중에서 정점을 이루는 대결작이다. 전형적인 브루크너 스케르초인 2악장, 종교적인 심원함을 담은 3악장, '코스키기병의 돌격'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호방함을 자랑하는 마지막 악장이 이상적으로 어우러진 작품이다. 본 음반은 1981년 로얄 페스티벌홀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스튜디오에서보다 실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시켰던 텐슈테트의 열정을 확인시켜준다.



KKV (kirkelig Kulturverksted)

www.kkv.no

DACA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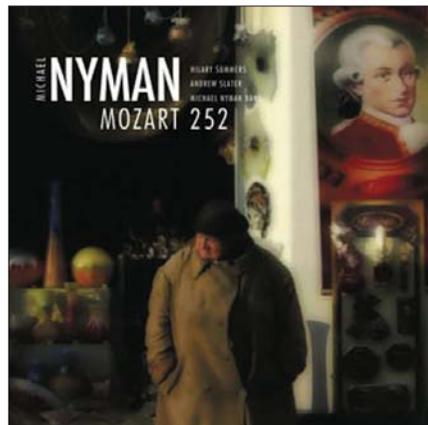
www.dacapo-records.dk



8.224718
그람: 교향곡 2번, 교향곡 3번, 아발론
 안드레아 펠레그리니(소프라노)/ 마티아스 애슈bacher/ 덴마크 필하모닉
 페더 그람(1881-1956)은 20세기 전반 덴마크 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곡가다. 소프라노와 관현악을 위한 '아발론'은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을 느껴지며, 함께 수록된 두 편의 교향곡(2,3번)은 작곡가의 뛰어난 관현악법과 북구의 음울한 색채가 조화를 이룬 드라마틱한 작품들이다.

MN Records

www.mnrecords.com



MNRCDD113
마이클 니만: 모차르트 252
 힐러리 심머즈(메조소프라노)/ 마이클 니만 밴드
 영화 '피아노'의 사운드트랙으로 전세계적인 히트를 거두었던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의 최신보. '모차르트 252'라는 음반타이틀 그대로 모차르트 탄생 252주년을 기념하는 오마주 앨범이다. 니만의 첫 히트작인 'In re Don Giovanni' 비롯한 모든 수록곡들은 모차르트의 작품을 기초로 한 것들로, 니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창조된 음악신동의 유쾌 발랄한 악상들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FXCD 331-2

SORGEN OG GLEDEN 여러 아티스트들 <슬픔과 환희>

북유럽 최고의 미인이며 노르웨이 왕실을 짊어준 왕세자비 메테 마리를 위해 11명의 가수들이 11곡의 찬송가를 부른다. 작은 책처럼 디자인된 부클릿 표지는 사진작가 Anne Katrine의 작품으로 내지엔 북극의 눈발에 찍힌 발자국이 명징하다. 이 음반은 동시에 LP로도 발매. Minor Majority 밴드 출신인 solveig Sletthjell과 노르웨이 소녀 합창단, Kari Brmnes, Sondre Bratland를 주축. 왕세자비는 그녀 아버지 장례식에서 읽었던 글귀를 애련하게 들려준다.

수록된 찬송가 중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알아왔던 곡들과 최근 새로운 곡들이 담겨있다. 가장 새로운 곡 중 하나는 Suverre Magnus 왕자의 세례식을 위해 Kari Bremnes가 쓴 곡. Hakon Berge와 Edvard Hoem의 찬송가 "이제 우리의 노래를 들어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 드려요"는 헤럴드 왕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쓴 곡이다. Erik Bye의 '블루 찬가' 또한 현대의 음악곡이다. 노르웨이의 전통 찬송가 "슬픔과 환희", "누구도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없네" 등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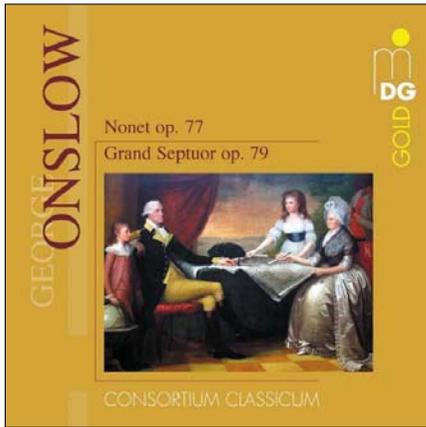
FXCD 330

Elin Furubo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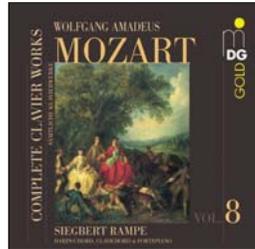
<지금이란 무엇인가>

엘린의 극적 데뷔 앨범! 통통 튀는 선율과 명상적인 가사. 스칸디나비아의 신성 싱어송라이터의 현악, 관악기에 휩싸인 보컬과 적절한 일렉트로닉 사운드. 사랑과 시간, 그리고 헌신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는 엘린은 충실한 Tanja Orning의 첼로를 비롯 오케스트라의 즉흥 연주와 밴드의 경쾌한 구성미에 힘입어 <2 지금이란 무엇인가>, <4 어떤 방>, 서정적인 <5 Rabbaloo>, <11 어떻게 그럴 수 있어?>등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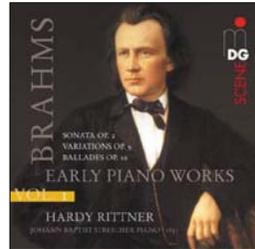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
MD&G
 www.mdg.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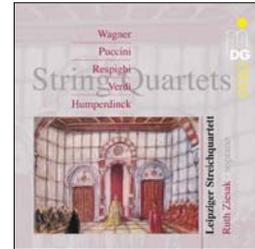
301 1480-2
온슬로우: 9중주 Op.77 & 그랜드 7중주 Op.79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숨겨진 실내악의 대가 온슬로우의 최만년에 완성한 대작 두 편을 함께 수록하였다. 9중주는 빅토리아여왕의 남편인 알버트공에게 헌정한 곡으로 초연당시 파리청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작품이다. 웅만한 관현악작품에 육박하는 당당한 스케일과 목관악기(fl, ob, cl, fg, hm)의 색채적인 활용이 인상적이다. 피아노가 맹활약하는 7중주는 실내악반주의 피아노협주곡과 유사한 성격의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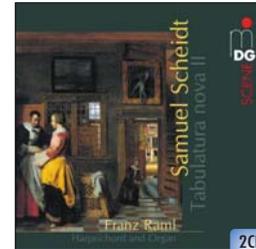
341 1308-2
모차르트: 건반 작품전집 vol.8 (터키행진곡 외)
지그베르트 람페(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를 번갈아가며 모차르트의 피아노작품을 녹음 중인 지그베르트 람페의 모차르트 시리즈의 8번째 음반. 이번 신보에는 터키행진곡으로 유명한 피아노 소나타 KV331이 포함되었다. 1771년에 제작한 영국형 하프시코드의 또렷도량한 사운드는 이 귀에 익은 작품을 한결 신선하게 전달해 준다.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하는 6개의 독일춤곡의 생기 발랄함도 각별하며, 클라비코드로 연주한 미뉴엣들과 건반소품들의 아기자기한 모양새도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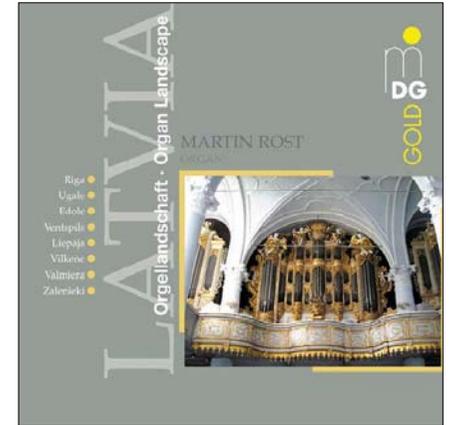
604 1494-2(Normal CD)
 904 1494-6(Hybrid-SACD)
브람스: 초기피아노작품집 vol.1 (소나타2번, 발라드 Op.10 외)
하디 리트너(피아노)
 하디 리트너는 카라얀 센터의 장학생이자 2005년 경남국제콩쿠르에서 윤이상 작품의 뛰어난 연주로 특별상을 차지했던 독일의 젊은 피아니스트다. 브람스의 소나타 2번과 발라드 Op.10를 통해 자신의 정교한 기교와 뛰어난 음악성을 확인시켜 준다. 신보의 또 다른 주인공은 1851년에 JB 슈트라이허가 제작한 포르테피아노다. 슈트라이허는 브람스가 극찬해마지 않았던 악기 제작자로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바래지 않은 이 역사적인 명기의 교묘한 사운드를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307 1495-2
푸치니, 레스피기, 훔퍼딩크, 베르디: 현악사중주
루트 지작(소프라노)
라이프지히 현악사중주단
 오페라로 유명한 작곡가들의 실내악을 모은 색다른 음반. '헨젤과 그레텔'의 작곡가 훔퍼딩크의 현악사중주는 후기낭만시대의 전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작품. 베르디의 현악사중주 역시 작곡가 특유의 유장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바그너의 사랑스러운 소품인 Albumblatt, 푸치니의 극초기작인 Crisantemi, 레스피기의 현악사중주 반주의 가곡 II Tramonto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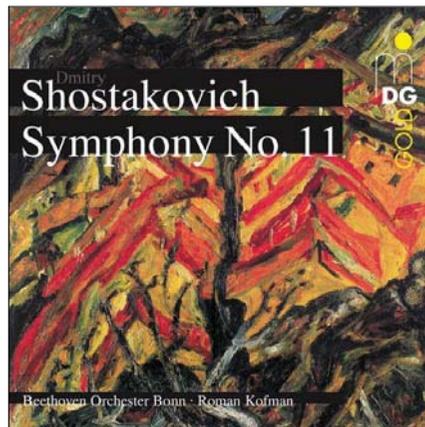
614 1497-2
사이트: 타블라투라 노바 vol.2
프란츠 람플(오르간, 하프시코드)
 사이트는 스위스, 사인과 더불어 독일 초기 바로크음악을 대표하는 3S의 한 사람이다. 1624년에 출판된 Tabulatura nova는 그가 교육 목적으로 완성한 건반작품집으로 독일 건반음악사에 특정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작품집의 하나다. 독일의 중견 건반연주자 프란츠 람플은 1623년에 완성된 성 슈테판 성당의 오르간과 JB Giusti 복제품 하프시코드를 사용하여 이 뛰어난 초기 건반 걸작들을 훌륭히 재현해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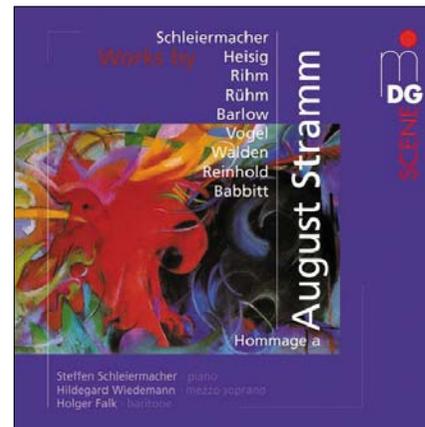
319 1503-2
오르간 랜드스케이프 (라트비아 편)
마르틴 로스트(오르간)
 오르간 랜드스케이프는 세계 유명 오르간들을 순례하는 독특한 시리즈 기획물이다. 이번 신보는 발트해연안의 소국 라트비아의 유명 오르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스테후데, 뮐텔, 텔레만 등의 바로크작곡가들의 걸작은 물론, 아르비드 질린스키, 아이바르스 칼레이스, 페터 라야 등의 근현대 라트비아 작곡가들의 독특한 오르간 작품들을 9종류의 악기들의 화려하고 개성적인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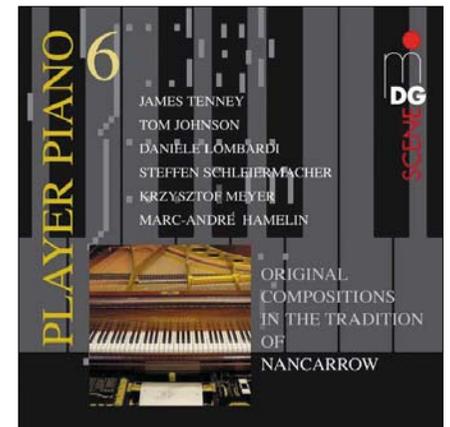
601 1499-2(Normal CD)
 901 1499-6(Hybrid-SACD)
요한 크리스티안 헤텔, 요한 빌헬름 헤텔: 트럼펫협주곡, 신포니아 볼프강 바우어(트럼펫, 지휘)/ 뷔르템베르크 관악오케스트라 하이브론
 요한 크리스티안 헤텔과 그의 아들 요한 빌헬름은 메클렌부르크-슈트렐리츠 궁정에서 활동했던 작곡가들이다. 이들은 축전음악적인 화려함과 트럼펫의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아들이 남긴 3곡의 트럼펫협주곡과 트럼펫과 오보에를 위한 이중협주곡 외에도 아버지의 작품인 2곡의 신포니아에서도 3대의 트럼펫과 팀파니가 독주 악기수준의 맹활약을 펼친다.



337 1209-2(Normal CD)
 937 1209-6(Hybrid-SACD)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1번 '1905년'
로만 코프만(지휘)/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완성을 목전에 둔 로만 코프만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사이클의 최신 보. 1905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궁정광장에서 벌어졌던 피의 일요일의 참혹함을 생생한 표제음악으로 표현했던 교향곡 11번을 수록하였다. MDG의 뛰어난 녹음은 오케스트라로 표현된 아비규환의 참혹함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특히 마지막 악장에 삽입된 종소리의 위력은 멀티채널 SACD를 통해 한층 더 위력적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613 1496-2
아우구스트 슈트람 추모음반
슈테판 솔라이어마이어(피아노)/ 힐데가르트 비더만(메조소프라노)/ 홀거 팔크(바리톤)/ 랄프 밀케(베이스플루트)/ 볼프강 하이저히(포놀라)
 아우구스트 슈트람(1874-1915)은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독일의 시인 겸 극작가다. 본 음반에는 그의 작품들에 기초한 현대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프리페어드피아노 반주의 독창적인 성악곡인 솔라이어마이어의 Die Menschheit, 포놀라(자동피아노)와 샘플러를 위한 볼프강 하이저히의 Mars saugt mut, 클라렌츠 바를로우의 명상적인 피아노독주곡 Textmusik 등 개성만점의 창의적인 현대작품들이 수록되었다.



645 1406-2
플레이어 피아노 vol.6 (솔라이어마이어, 아를랭 외)
아미코 플레이어 피아노 메커니즘
 플레이어 피아노는 천공된 종이테이프의 정보를 자동적으로 연주하게끔 고안된 악기를 말한다. 많은 현대작곡가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자동악기의 폭넓은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본 음반에는 현존 최고의 피아노 테크니션 아를랭과 현대음악전문연주자로 유명한 솔라이어마이어 등의 피아니스트들을 비롯한 여섯 작곡가들의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경북 청도땅 천년고찰 운문사의 진광 스님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가장 선하고 눈물겨운 시들.....
덴가슴마다 고이 매만져줄,
청량 청명 청아한 목소리.....

시를 사랑하고, 시처럼 사는 스님의 시낭송집은 법정 스님 오디오북에 이어 강박해진 현대사회에 건네는 두번째 산사의 맑고 향기로운 선물이다. 강물에 척척 놓여진 징검다리 같은 배경 음악들은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 임의진이 골라 격조를 한층 높이고 있다. 경전을 읽듯, 또는 독경을 가만히 들듯 항상 곁에 두고 있노라면 가슴 바닥까지 내려앉은 슬픔마다 말끔히 가시고 새날이 뚝뚝 떨어진다.

- | 이문재 |
- | 나태주 |
- | 임의진 |
- | 곽재구 |
- | 박노해 |
- | 임길택 |
- | 진광 |
- | 정태춘 |
- | 김선우 |
- | 강제윤 |
- | J. 메이스필드 |
- | 헤르만 헤세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사는 우리나라 비구니 승가를 대표하는 도량이다. 진광 스님은 그곳으로 출가하여 수십 년을 정진하며, 지금은 갓 출가한 풋풋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시다. 스님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향해, 그 맑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시 한수 읊어주곤 한다. 길고 고운 머리카락과 옷맵시를 한껏 자랑할 나이에 삭발하고 잿빛 승복을 갈아입은 비구니 스님들, 새벽부터 밤까지 한뜻 한마음으로 불법을 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운문사의 천년지기 소나무 숲과 산새들과 야생화들도 스님의 시낭송에 귀를 쫓그리곤 하였다. 자비와 위로, 그리고 격려와 굳센 의지가 스님의 목청을 타고 강물처럼 흘러드는 순간...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고자 「구름 나그네」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 스님의 시낭송을 다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음은 정녕 반갑고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꼭마다 수놓아진 배경음악은, 스님과 오랜 도반 사이인 「여행자의 노래」 선곡자이며 남녘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던 떠돌이별 임의진이 직접 골랐다. 붓다와 예수의 제자, 종교 간의 화해와 우정이 도타운 평화로 꽃 피는 가슴 찡한 장면이다. 각박한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시와 시집, 시인과 멀어져 가고 있다. 시(詩)는 한자풀이대로, 사원에서(寺) 듣는 맑고 깊은 말씀(言)이다. 청량하고 청명하며 청아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시다.

운문사의 법도대로, 이제는 어떤 사찰에서도 찾아 볼 길 없는 전통적인 절집살이는 진광 스님의 목청을 더더욱 맑고 순수하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그분 목소리를 들노라면, 문명의 찌든 때가 한 꺼풀 벗겨지는 것 같고, 고단한 인생마다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 보통들 시낭송에서 거슬리는 감정의 과잉은 절제와 관조로 바뀌어 편안하고, 버섯겨서 따로 노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넉넉한 받침대와 기둥들, 아늑한 지붕이 되어 낭송하는 시마다 각별히 떨어 주고 있다.

이문재, 나태주, 임의진, 곽재구, 박노해, 임길택, 김선우, 강제윤 시인을 비롯 음유시인 정태춘에서 J. 메이스필드, 헤르만 헤세까지 아우르는 또박또박한 시낭송과 함께 낭송 없이 곡만 흐르는 <Wonderful Friend>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두와 친구 되고자 공을 박차고 저자거리로 나오셨듯, 하나의 가족 울타리에서 출가하여 여럿인 세계 가족으로 넓어지는 입가(入家)의 우정을 노래하는 것만 같다.

“수행자 이전의 한 사람, 한 소녀, 한 나무꾼, 한 사랑이 여기 있다. 아니, 여기엔 이미 수행자 이전이나 이후가 없다. 유독 시낭송을 사랑하는 진광스님을 나는 시를 사랑하는 자연이라 부른다. 스님이 운문사 학인들과 나누는 시편들에 노란 은행잎이 지고 봄꽃에 앉았다 간 바람이 묻기도 할 때, 그 모든 시간의 곁들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된다. 처처에 아름다운 수행의 숨결들이다.”

(김선우 / 시인)

유독 시낭송을 사랑하는 진광스님을 나는 시를 사랑하는 자연이라 부른다. 스님이 운문사 학인들과 나누는 시편들에 노란 은행잎이 지고 봄꽃에 앉았다 간 바람이 묻기도 할 때, 그 모든 시간의 곁들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알게 된다. 처처에 아름다운 수행의 숨결들이다.”

처처에 아름다운 수행의 숨결들이다.”

(김선우 / 시인)

처처에 아름다운 수행의 숨결들이다.”

처처에 아름다운 수행의 숨결들이다.”

처처에 아름다운 수행의 숨결들이다.”

처처에 아름다운 수행의 숨결들이다.”

| 수록곡 |

1. 티벳 여행 안내서 | 이문재
Song of the Gypsy - Elizabeth Falconer
2. 돌게단 | 나태주
One Last Look - Robin Spielberg
3. 마중물 | 임의진
Morning Grace - Radhika Miller
4. 4월의 노래 | 곽재구
Gabriel 's Message - Small & Torres Guitar Duo
5. 회향 | 박노해
Wayfaring Stranger - 이성준
6. 완행버스 | 임길택
Cinema Paradiso(Love Theme) - 장대건
7. 운문에 살다 | 진광
Unforgetting Heart - Michael Hoppé
8. Wonderful Friend | Eric Chiryoku
Instrumental
9. 너의 노래 | 정태춘
Bilrou - Joao Paulo & Peter Epstein & Ricardo Dias
10. 세한 | 김선우
Ave Maris Stella - Tore Brunborg & Kjetil Bjerkestrand
11. 견딜 수 없는 사랑은 견디지 마라 | 강제윤
Aussie's Song - Amy Lauren
12. 그리운 바다 | J. 메이스필드
Setting Sail - Jeanette Alexander
13. 밤비 | 헤르만 헤세
Shadows Fall - Michael Hoppé
14. 그 누구도 혼자 걷지 않기를 | 작자 미상
A Song of Soul - David Lanz

이 시낭송 모음집을 선물하는 그대야말로 내 '멋진 친구', '멋진 도반' 이라고 서로서로 고백하면 어떨까! 진광 스님의 「구름 나그네」는, 우리시대의 밝은 등불 법정 스님의 「연꽃 향기를 들으면서 (김세원 낭독)」에 이어, 두 번째 아울로스에서 펴내는 오디오북 시리즈다.

(아울로스 미디어 2008 제공)



| 진광 스님 |

1977년에 운문사에서 명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운문사 강원 대교과를 마쳤다. 이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Southwest Zen Academy에서 한동안 선(禪) 수련을 하였다.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 미술사와 철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운문사 승가대학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스님은 30여년 넘게 산에 살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를 노래하며 작고 소소한 것에도 감동, 감사, 행복해 하는 소욕지족의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OpusArte DVD OA 0990D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어윈 슈로트(피가로)/ 미아 페르손(수잔나)/
 도로테아 뢰슈만(백작부인)/ 제랄드 핀리(백작)/ 리넷 사함(케루비노) 외/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로얄 오페라하우스, 코벤트 가든

넵트렌코의 연인, 어윈 슈로트의 넘치는 매력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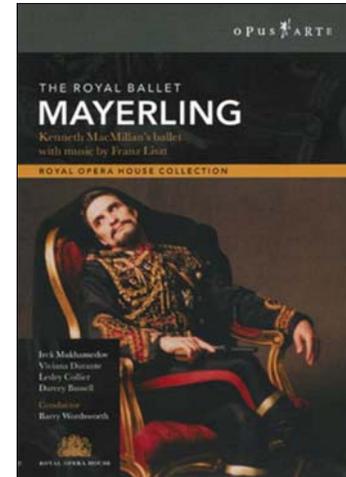
2006년 2월 코벤트가든 실황을 수록한 이 DVD는 가수들의 열연, 뛰어난 무대연출, 일사불란한 기악양상불이 삼위일체를 이룬 최상의 공연을 수록하고 있다. 넵트렌코의 연인이라는 화제 덕분에 한층 더 유명해진 우루과이 출신의 기대주 어윈 슈로트가 험성한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통해 매력만점의 피가로를 연연하였고, 미모와 음악성을 겸비한 매력만점의 소프라노 미아 페르손이 사랑스런 수잔나를 연기하였다. 이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히로인 도로테아 뢰슈만은 연기와 노래 모두에서 최상의 백작부인을 들려주며, 중견 바리톤 제랄드 핀리의 음울한 백작 캐릭터 역시 출중하다. 주역 4인방을 든든히 보조하는 조연가수들의 앙상블도 빈틈이 없으며, 특히 영국이 자랑하는 지성파 테너 필립 랑그리지의 깜짝 변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데이비드 맥비카의 연출은 사실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연기와 곳곳에 삽입된 코믹한 연출을 통해 오페라 부파라는 이 작품의 본명을 충실히 재현해내었다. 탄탄한 앙상블로 우아하고도 세련된 음악드라마를 이끌어낸 안토니오 파파노의 지휘 역시 훌륭하다.

[보충자료]

○ 지금은 소프라노 안나 넵트렌코의 연인(조만간 둘 사이의 아이가 출생할 예정이다.)으로 유명세가 한층 더해졌지만, 어윈 슈로트는 일찍이 차세대 기대주의 한 사람으로 오페라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1972년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이 가수는 1998년 도밍고가 주관하는 오페렐리아 콩쿠르에서 1등상과 관객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세계음악계에 화려하게 이름을 올렸다. 현재 라 스킨라, 메트, 코벤트가든 등의 최고의 오페라극장을 배경으로 맹활약 중이다. 앞서 TDK를 통해 발매되었던 로시니의 <모세와 파라오>,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DVD에서도 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스코틀랜드 출신의 데이비드 맥비카는 그간 선정적이고도 파격적인 무대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연출자다. 그가 코벤트가든의 무대에 올렸던 <마술피리>와 <리골레토>, 그리고 글라인드본에서 연출했던 헨델의 <줄리오 체사레>등이 이미 Opus Arte를 통해 DVD로 발매되었었다. 특히 <줄리오 체사레>는 2006년 그라모폰 어워드에서 최우수 DVD로 선정되기도 했다.

○ 캐스트 갤러리, 일러스트레이티드 시놉시스가 보너스 영상으로 제공되며,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카, 지휘자 안토니오 파파노, 그리고 주요 가수들의 인터뷰를 수록한 미니 다큐멘터리가 함께 제공된다.



OpusArte DVD OA R3101D

케네스 맥밀란: 마이얼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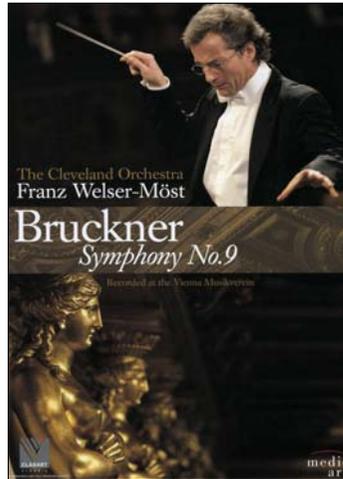
1889년 합스부르크의 황태자가 자살한 충격적 실화를 다룬 발레

케네스 맥밀란의 발레 <마이얼링>은 연극처럼 구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하는 드라마 발레다. 게다가 1889년 1월 오스트리아 남부의 마이얼링이란 궁정 사냥터에서 벌어진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 루돌프의 충격적인 자살사건에서 취재한 작품이다. 영광스럽지만 너무도 부담스런 자리, 정신 병력이 있는 자신에 대한 황실과 대신들의 의혹의 눈초리,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부모와도 대화도 단절되어 버린 상태, 결국은 방종과 마약에 의지하며 걸로만 왕자의 생활을 유지하던 31세의 루돌프는 17세의 어린 소녀 마리 베체라와 함께 권총 자살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 케네스 맥밀란은 루돌프의 정신분열적인 내면세계와 삶에 대한 자포자기를 극적으로 표현해 냈다. 러시아 출신의 이력 무하메도프가 루돌프의 절망을 전율할만한 연기로 재현하고, 이탈리아 출신의 비비아나 두란테는 어리지만 대범한 마리 베체라를 결코 잊을 수 없게끔 소화한 1994년 로열 발레 실황이다. 발레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소재일 뿐 아니라 에로스와 타나토스(죽음에 대한 동경)라는 예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동시에 구현한 걸작이다.

[보충 자료]

○ 케네스 맥밀란(1929~1992)은 존 크랑코와 더불어 전막 드라마 발레를 유행시킨 최대 공로자이다. 역사적 소재, 연극적인 줄거리, 강렬한 성적 표현에 몰두하였으며, 지나칠 정도의 실현정신으로 성공작과 졸작이 혼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960년대에는 발레리나 린 세이모어, 1980년대에는 알레산드라 페리를 총애한 것으로 유명한데, <마이얼링>은 마리 베체라 역에 린 세이모어를 염두에 두고 1977년에 만든 작품이다.

○ 발레의 배경은 1880년대 후반 오스트리아로, 1889년 1월 30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인 루돌프가 자신의 어린 애인 마리 베체라와 함께 동반 자살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목인 마이얼링은 이들이 함께 죽은 사냥 오두막이 있는 지역의 지명이다. 그가 왜 자살을 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당시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교인 가톨릭의 교리상 자살은 교회에 묻힐 수도 없고 장례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사인(死因)은 심장발작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었고 수많은 루머가 돌았다. 이 발레에는 루돌프의 모후인 엘리자베트 왕비도 등장한다. 그녀는 '시시'란 별명으로 유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통했던 유명한 여인이다. 아들을 어이없이 잃었을 뿐 아니라 자신도 9년 후에 한 무정부주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세상을 뜬 비운의 주인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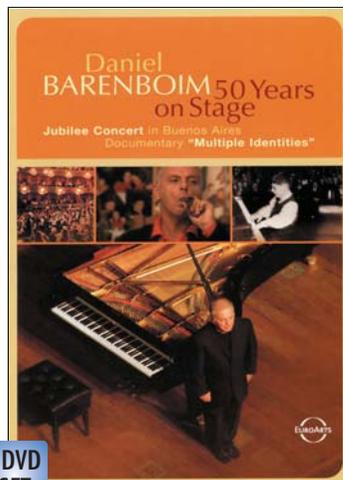
Euroarts DVD 2056848

브루크너 : 교향곡 9번

Franz Welser-Möst / The Cleveland Orchestra

벨저-뮌스터, 브루크너의 마지막 걸작을 지휘하다.

2007년 10월 빈의 무지크페라인의 황금 홀에서 있었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실황이 DVD로 발매되었다. 음악감독 프란츠 벨저-뮌스터의 지휘로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을 연주한 것. 교향곡 9번은 '사랑하는 신께 바친다' 작곡가의 헌사가 말해주듯 브루크너가 마지막 혼을 불어넣었던 위대한 작품이다. 3악장의 완성 이후 상당한 시간이 남았음에도 브루크너는 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미완의 아련한 여운으로 인해 이 작품의 심원한 아름다움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조지 셸의 집권 당시부터 미국의 정상급 악단들 중에서도 가장 유럽풍의 사운드를 구사하는 악단으로 유명했으며, 현 음악감독 벨저-뮌스터의 휘하에서는 브루크너의 작품에 잘 어울리는 온후한 사운드를 갖추게 되었다. 브루크너의 본산이자 1903년 바로 이 작품이 초연되었던 이 뜻 깊은 연주 홀에서 작곡가와 같은 린츠 출신의 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던 이 공연은 당시 관객과 현지 언론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품에 대한 벨저-뮌스터의 해설을 담은 18분 분량의 보너스 필름이 함께 수록되었으며, 유로아츠가 자랑하는 최고의 화질과 음향으로 작품의 감동을 더욱 배가시킬 것이다.



2DVD SET

Euroarts DVD 2050427

바렌보임 데뷔 50주년 기념 리사이틀

- Mozart: Sonata K330/ Beethoven: Appassionata/ Albeniz: Iberia 1 & 2
- 리사이틀 실황과 함께 바렌보임의 발자취를 담은 9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 'Multiple Identity' 가 보너스 DVD로 제공

2000년 9월 19일에 있었던 다니엘 바렌보임의 데뷔 50주년 기념리사이틀을 담은 DVD. 1950년 불과 8살의 나이로 공식데뷔 리사이틀을 치렀던 이 신동 피아니스트는 이제 피아노와 지휘 양분야 모두에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무대는 자신의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콜론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졌다. 모차르트의 소나타 K330과 베토벤의 열정소나타, 그리고 알베니스의 이베리아 1,2권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도 훌륭하지만, 이 리사이틀의 백미는 무려 45분 동안 13곡이나 이어졌던 앙코르 릴레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앙코르를 이어가는 바렌보임의 모습이 훈훈하며, 모든 관객들이 함께 부르는 축하노래 역시 감동적이다. 리사이틀 실황과 함께 바렌보임의 발자취를 담은 9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Multiple Identity' 가 별도 DVD로 제공된다. 시카고, 베를린, 바이마르,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에서의 바렌보임의 활약상과 함께 바르톨리, 요요마, 메타, 볼레즈, 헨리 포셀, 에드워드 사이드 등의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던 2001년 이스라엘에서의 첫 바그너공연 당시 벌어진 격렬한 논쟁 역시 이 다큐멘터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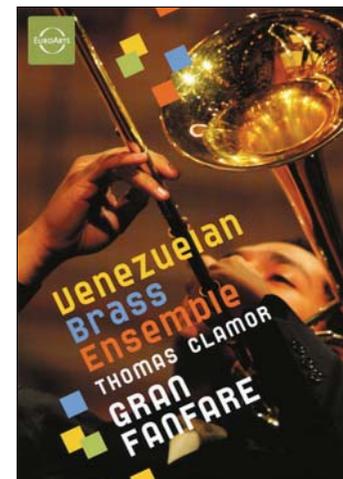
Euroarts DVD 2055178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콘서트
- 클래식, 팝, 재즈, 월드뮤직의 향연**

재즈계의 슈퍼디바 디디 브리지워터/ 기타리스트 미카엘 크라이더/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제스로 툴'의 리더였던 이안 앤더슨/ 클래식계를 대표하는 독일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벤야민 슈미트 / 정상급 모차르트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월체 등

다양한 장르로 변주된 모차르트의 선율들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모차르트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흥미만점의 영상물. 지난 2006년 1월 14일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빈의 뮤지엄 쿼터에서 펼쳐졌던 화제의 콘서트를 수록한 DVD로 클래식, 팝, 재즈, 월드뮤직 등의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모차르트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재즈계의 슈퍼디바 디디 브리지워터,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제스로 툴'의 리더였던 이안 앤더슨, 기타리스트 미카엘 크라이더와 그의 밴드, 모차르트의 선율에 이집트 전통음악을 접목시켜서 화제를 모았던 모차르트 인 이집트 밴드 등이 참여하였고, 클래식계를 대표해서는 독일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벤야민 슈미트, 정상급 모차르트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월체, 그리고 안드레이 보레이코가 지휘하는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무대를 화려하게 빛내었다. 저마다 사용하는 악기와 연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차르트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모여든 이들의 무대를 통해 진정한 크로스오버의 묘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모든 출연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만들어내는 모차르트의 즐거운 캐논 'O du eselhafter Peidrl' 는 이 콘서트의 백미와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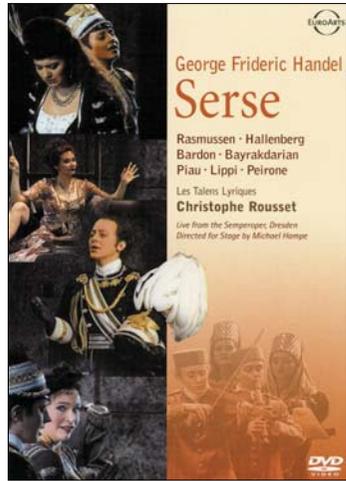
Euroarts DVD 2056788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있었던 화제만발의 콘서트 실황
Gran Fanfare: Venezuelan Brass Ensemble**

-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의 편곡
- 아브레우의 '티코 티코', 번스타인의 '맘보', 거쉬윈의 'I Got Rhythm' 등

젊은 청년들의 재능과 끼를 담은 열정의 무대

'시스템마(Sistema)'는 차세대 거장 구스타보 두다멜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를 배출한 베네수엘라의 훌륭한 청소년 음악교육 시스템이다. 자칫 범죄에 빠져들기 쉬운 극빈층 청소년들에게 음악이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한 시스템마는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걸출한 성과들을 일구어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브라스 앙상블 역시 시스템마가 만들어낸 성공작의 하나다. 500개가 넘는 이 나라의 유스 오케스트라들 중에서 선발된 최고 기량의 관악 및 타악 주자들이 구성된 이 단체는 전세계를 순회하면서 음악계에 신선하고도 놀라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본 DVD는 2007년 9월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에서 있었던 화제만발의 콘서트 실황을 고스란히 수록한 것이다.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의 편곡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뛰어난 개인기량과 우수한 합주력도 감탄할 만하지만, 아브레우의 '티코 티코', 번스타인의 '맘보', 거쉬윈의 'I Got Rhythm' 등등 연이여 펼쳐지는 흥겨운 춤곡들에서 이들의 타고난 리듬감각과 넘치는 흥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악단의 타악주자인 펠릭스 멘도사의 창작곡 'Guerra de Secciones' 에 가득 담긴 즐거운 감동을 놓치지 마시라.



Euroarts DVD 2053798

헨델: 오페라 '세르세'

'Ombra mai fu' 가 수록된 헨델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세르세'는 헨델의 수많은 오페라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의 하나다. 1막에 등장하는 아리아 'Ombra mai fu'는 '헨델의 라르고'라는 기악곡으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오페라 전곡은 작곡가의 다른 오페라들과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무대에 오르질 못했다. 하지만 1924년 괴팅겐의 헨델 페스티벌에서 리바이벌된 이후 '세르세'는 헨델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본 DVD는 2000년 6월 드레스덴의 유명한 쟈퍼오퍼에서 펼쳐졌던 공연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하프시코드주자이자 바로크음악 전문지휘자 크리스토프 루세가 지휘를 맡았다. 루세와 그가 이끄는 시대악기 연주단체인 르 탈랑 리리크는 바로크 무대음악에 관한 한 음반과 실연 양쪽 모두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연주자들이다. 원래 타이틀 롤은 카스트라토를 위해 씌어졌지만, 본 공연에서는 실력파 여성알토인 파올라 라스무센이 성을 초월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와 노래를 들려준다. 산드랭 피오, 안 할렌베르크, 파트리샤 바르동과 같은 일급 가수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고대 페르시아에서 18세기 유럽의 한 궁정으로 오페라의 배경을 옮겨 놓은 미카엘 함페의 연출은 대단히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이다.

[보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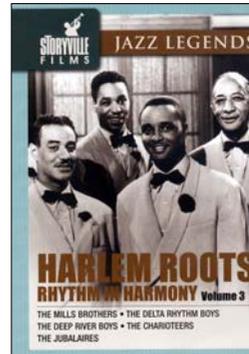
○ 세르세는 고대 그리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의 이탈리아식 이름이다. 영화 '300'에서 요란한 금장식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묘사되었던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였다. 1738년 런던에서 초연되었을 때는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헨델 생전에 겨우 5번만 추가로 공연되었을 뿐 20세기 초에 재평가되기까지 무려 250년 동안 세인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다만 1막의 아리아 'Ombra mai fu'만이 기악으로 편곡되어 '라르고'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다. 바로크 오페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지금 '세르세'는 헨델의 가장 우수한 오페라의 하나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오페라의 내용은 어느 바로크 오페라들과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얽힌 등장인물들의 애증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세르세는 로밀다와 결혼을 계획하지만, 로밀다는 세르세의 동생인 아르사메네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로밀다의 여동생 아탈란타는 아르사메네를 짝사랑한다. 세르세는 아르사메네를 추방하고 아탈란타의 흥개로 인해 로밀다와 아르사메네는 다투게 된다. 여기에 로밀다를 차지하기 위해 쫓아내었던 세르세의 전처 아마스트레가 사건에 연루 되고, 우여곡절 끝에 로밀다와 아르사메네가 연결되고, 세르세는 다시 아마스트레에게로 돌아가면서 해피엔딩으로 오페라가 마무리된다.



Storyville Films DVD (Jaz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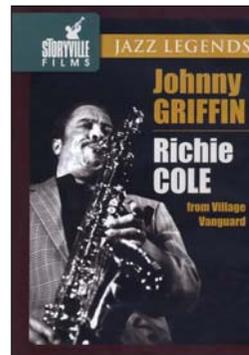
www.storyvillejazzdvd.com



Storyville DVD 26002

할렘의 뿌리 3집: 리듬 인 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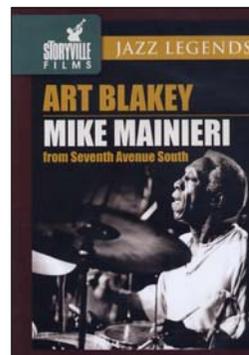
초기 재즈, 스윙 시대의 획기영상물들을 모은 '할렘의 뿌리' 시리즈 중 세 번째 편으로 1941년부터 1947년까지의 남성 중창단의 영상물들을 망라했다. 최고의 인기 중창단이었던 밀스 브라더스를 비롯해 델타 리듬 보이즈, 딥 리버 보이즈, 채리어티어스, 주벨라이어스의 노래와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화면은 단순한 공연영상이 아니라 당시의 음반홍보 영상으로 오늘날 뮤직비디오의 효시와 당시의 아프로-아메리칸의 문화풍습을 살펴볼 수 있다.



Storyville DVD 26075

자니 그리핀: 리치 콜 <빌리지 밴가드 실황>

테너 색소폰의 최고속주를 자랑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은 거인' 자니 그리핀과 퓨전 시대 비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던 알토 색소포니스트 리치 콜의 뉴욕 빌리지 밴가드 실황을 키플링한 영상물.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실 새 없이 몰아붙이는 그리핀의 연주는 한때 존 콜트레인과의 자웅을 겨뤘던 그의 진면모를 새삼 확인할 수 있으며 리치 콜 밴드의 연주에서는 리더뿐만 아니라 탁월한 두 사이드맨, 바비 엔리케즈(피아노)와 브루스 포먼(기타)의 연주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Storyville DVD 26076

아트 블레이크: 마이크 마이니어리 <7번 애버뉴 사우스 실황>

재즈의 전령사 아트 블레이크와 '70년대 이후 바이브라폰의 새로운 스타일을 개척했던 마이크 마이니어리의 실황을 키플링한 영상물. 두 편 모두다 뉴욕에 위치한 클럽, 7번 애버뉴 사우스에서의 공연. '80년대 젊은 연주자들을 영입해 새로운 스타일로 탈바꿈 했던 아트 블레이크의 재즈 메신저스의 진면모를 감상할 수 있는 이 영상은 당시 혜성처럼 등장한 22세의 트럼펫 주자 윈턴 마살리스의 발군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반면 마이크 마이니어리 밴드는 재즈/록 시대의 수퍼션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진용으로 빈틈없는 팀워크의 연주를 들려준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8,500개 음반 / 25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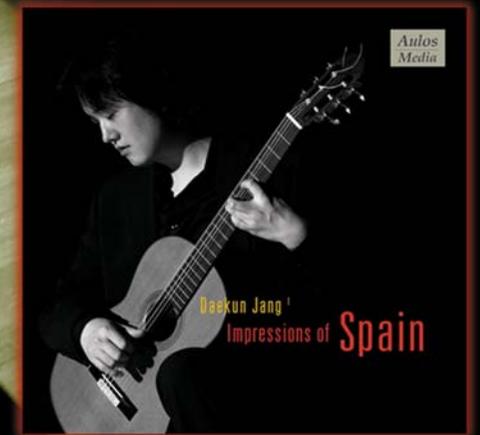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두번째 음반

Impressions of Spain 스페인 의 인상



루이스 밀란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를 두루 석권하고
기타의 본고장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찬사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장대건의 두 번째 음반.

보너스 트랙으로 영화 <금지된 장난>중에 '로망스' 수록.



표지사진
Gioconda De Vito

<아울로스뉴스> 2008년 4, 5월호
통권 제 31호 발행 : 2008년 6월 5일
발행인 : 임용득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